

2026-09-04 · 큰카스와 AI 포모단 · 21:29 → 23:15

우린 여캠이야. 다들 춤을 춰.

목요일 밤 카톡방에서 한 시간 사십오 분 만에 철학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재표형의 '여캠론'이요. 제가 그날 밤 2,436줄을 한 줄도 안 빼고 다 읽었고, 비유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소크라테스·장자·세네카·카뮈·맹자 중 누구 문장이랑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2,436 **1h 45m** **18**
발화 21:29:49-23:15:24 참여자

22
문장의 계보

스크롤로 읽는 해설판 · 인쇄본 검용 · 삽화 GPT Image
2 · 글 잡도리 🍷



이 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차례

- 01 한 장으로 보는 여캠론
- 02 그날 밤, 8막
- 03 비유 사전 25항목
- 04 계보 지도, 22개 문장
- 05 죽음, 벌, 조커
- 06 춤을 추자 / 춤추지 말자
- 07 마이킹의 흐름
- 08 플랫폼 사다리
- 09 다섯 사람
- 10 재표형, 조크라테스의 삶
- 11 리뷰 토론, Architect × Ultrabrain
- 12 그래서 뭐가 남나
- 13 부록 · 참고문헌

사람 얘기는 이 105분 카톡에서 보인 역할에 대해서만 합니다. 실명 뒤 신원이나 사생활, 마음 상태는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철학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026년 9월 4일 밤 9시 29분. 재표형이 "그 나는 요즘 / 돈 잘 벌고 / 졸업하는 / 여캠들에 대해서 생각해"라고 친 그 순간부터 대화가 끝나는 11시 15분까지, 2,436줄을 다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긴 '여캠론'은 한마디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 코드 짜는 사람, AI 쓰는 사람의 삶을 여캠 경제로 번역해 보는 비유 체계입니다.

글은 두 가지 면이 번갈아 나옵니다. **어두운 면(무대)**엔 그날 밤 원문이란 비유가 있고, **밝은 면(서재)**엔 그걸 풀어 쓴 해설, 철학사 계보,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님" 판정이 있습니다. 원문은 무조건 [21:30:29] 이런 시각이란 말이 그대로 옮겨졌고, 철학 인용엔 원전 권·장·절 붙였습니다. 제 말인지 원문인지 헷갈릴 일은 없게 해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대화에 여자나 성노동 낮춰 부르는 말, 성적인 드립, 죽음 가볍게 던지는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말들 그대로 옮기긴 하는데, 맞는 말이라서 옮기는 건 아닙니다. 여캠론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려면 단어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대신 그 말이 논리를 어디서 무너뜨리는지는 그때그때 따로 짚겠습니다.

세 겹 범례

21:30:29 조재표 우린 여캠이야

① 그날 밤 원문. 시각, 화자, 발화 그대로.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La lutte elle-même vers les sommets suffit à remplir un cœur d'homme. Il faut imaginer Sisyphe heureux.

카뮈, 『시지프 신화』(1942) 마지막 문단

② 철학 원전. 우리말 번역, 원문, 출처 세트로.

판정 ③ 해체 결론. 살아남는 통찰이란 부서지는 지점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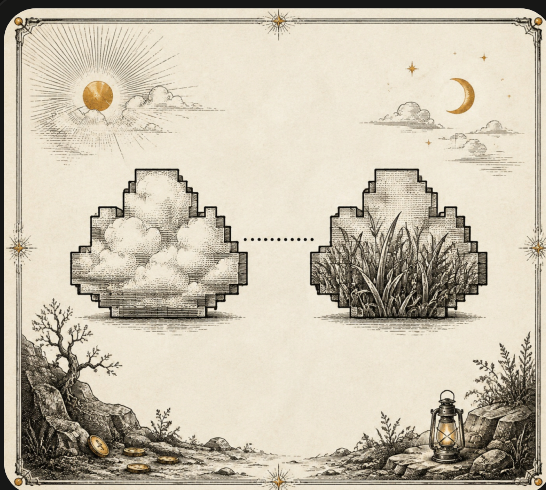
같은 뼈대, 다른 껍질

여캠론 밑바탕은 21:42에 딱 한 줄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유추하는 구조를 찾고자 하면 다 있다." 연규형이 바로 마리오로 받았죠. 옛날 마리오가 메모리 아끼려고 구름이랑 풀을 같은 그림에 색만 바꿔 썼다는 그 얘기로. 아래 지도는 그 말을 그대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뼈대는 그대로 두고 이름표만 갈아끼웁니다. 몇 초마다 알아서 바뀌니까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기준 무대. 여캠 경제. 재표형이 처음 깬 판입니다.

자리	여캠의 무대	스타트업의 무대	AI 생태계
1	여캠 춤추는 사람	창업자 피치하는 사람	엔지니어 하네스 연마
2	회장님 큰손 후원자	리드 투자자 보드 시트	프론티어 랩 다리오 언니
3	플랫폼 아프리카·트위치	시장·앱스토어 노출·수수료	모델 API 가격·정책
4	마담 중간 관리	대표·팀장 위에 팔고 아래서 산다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이슈 응대
5	마이킹 선불금	투자금·크레딧 미래를 담보	무료 크레딧 락인
6	별풍선 즉시 보상	ARR·스타 지표 경쟁	쿼터·벤치 리밋에 떨림
7	졸업 은퇴·피벗	IPO·엑시트 선택권 회수	졸업? 없다
8	팬더TV 강등된 무대	외주·폐업 잘못 물린 뒤	기본 모델 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



"마치 마리오에서 구름과 잔디가 사실은 같은 모양이듯, 메모리 절약을 위해" (연구형, 21:43:06). 관계는 옮겨 가는데 재료는 안 옮겨 갑니다. 이 구분 하나가 이 글 전체 원칙입니다.

21:42:32 조재표 이상하게 뭔가 이 세상에서 유추하는 구조를 찾고자 하면 다 있다? 이건 어디에 대응될까 생각하다 보면 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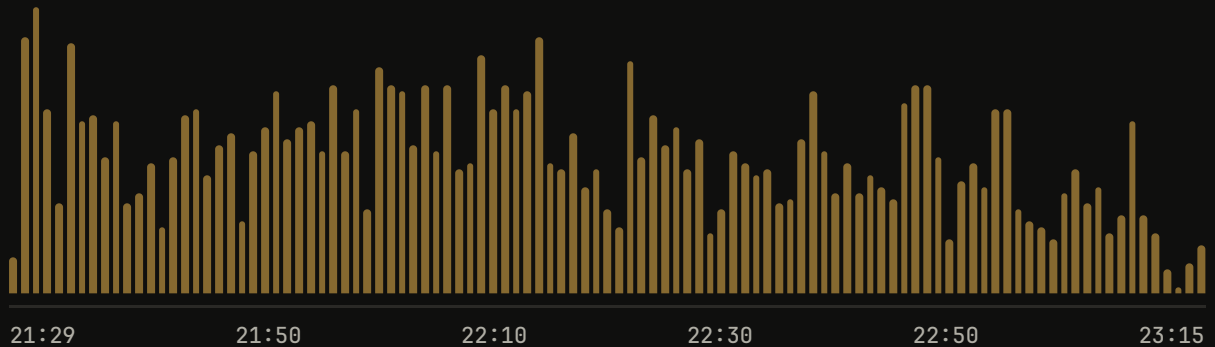
21:43:19 조재표 이건 뭔가 신이 우리를 빚어낸 것에 대한 방법론의 이야기일지도

인지과학에선 이걸 **구조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Gentner, 1983). 좋은 비유는 겉모습 말고 관계의 배열을 옮기는 거예요. 후원자→공연자→플랫폼→중개→빚→졸업, 이 배열이 스타트업에도 있다는 발견은 진짜 맞습니다. 근데 구름이랑 풀이 같은 그림 쓴다고 같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여캠론이 무너지는 자리는 전부 "**구조가 닮았다**"를 "**본질이 같다**"로 바뀌 타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세 번째 무대(AI)에서 **'졸업' 자리가 비어 있는 거** 봐 두세요. 대화 후반에 "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재표형 22:02:33)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무대엔 은퇴가 없고 강등만 있어요. 그게 좀 웃기고 좀 무섭습니다.

비유가 철학이 되는 데 105분

분당 발화량 위에 8막을 엮었습니다. 밑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지금 읽는 막 구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처음 3분(21:30-21:32)에 분당 40건 넘게 터지고, 22:12-22:35 빛·계급 얘기에서 두 번째 봉우리가 옵니다.



21:29-21:37

1막 · 발아

21:30:04 조재표 스타트업은 여캠같은거 같아 · 돈 많이 벌었을 때 은퇴하고 다른걸로 피벗해서 레버리지해야돼 · 우린 여캠이야 · 다들 춤을 춰

21:31:03 조재표 회장님을 버려야돼 · 돈은 주시지만 받으면 안돼 · 그러다 까딱 실수하면 팬더티비 가서 벗방하는게 그냥 스타트업의 생리야

21:31:25 김연규 아무돈이나 받지말아라 라는말을 저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조크라테스

발아. 돈, 졸업, 여캠 세 단어에서 비유가 태어나고 연규형이 첫 번역이랑 이름을 붙입니다. '조크라테스' 호칭은 21:31:40이 최초입니다.

21:37-21:42

2막 · 돈의 이름

21:31:57 김연규 그 돈에는 이름과 대가가 있는건데 라는 이 안와닿는 말을 팬더티비 회장오빠로 설명하는 조크라테스

21:33:04 조재표 야근을 하다가 깨달았느니라 · 나는 여캠이다

21:37:52 조재표 니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딜을 받은건 회장이 스폰을 해준다고 한거야

돈의 이름. 후원금, 투자금, 매출이 같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성적인 드립 모양으로 굳습니다. '노원구 현자 조크라테스'(21:38:33)도 여기서 나옵니다.

21:42-21:44

3막 · 구조의 발견

21:42:23 조재표 이건 좀 진지한 얘기인데 · 이 세상에서 유추하는 구조를 찾고자 하면 다 있다 · 사업이랑 여캠도 대응 구조가 있는게 나도 좀 신기하긴 하네

21:43:06 김연규 마치.. 마리오에서 구름과 잔디가 사실은 같은 모양이듯.. 메모리절약을위해..

구조의 발견. 여캠론의 유일한 '철학 원리'가 2분 안에 나옵니다. 위 1장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21:44-21:57

4막 · 죽음·벌·조커

21:44:36 조재표 죽고싶다고 생각해 ·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 · 오늘 삶이 끝나야
오늘 해야할 일을 하는거야

21:49:03 조재표 벌은 받는 순간부터 두렵지 않아 · 받기 전까지가 지옥이야

21:50:41 조재표 레이디 가가가 상상인지 아닌지 중요한게 아니야 · 그렇게 삶이 표현된다는게
중요한거야

21:53:08 조재표 과거의 내가 날 죽인거야 · 과거의 내가 품었던 어떤 마음이 나의 죄가 날 죽인거야

실존의 층. 돈 얘기가 죽음, 벌, 조커2, 씨앗으로 커집니다. 생쥐형이 "그러지마"(21:44:41)로 브레이크를,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21:49:07)로 번역을 동시에 겁니다.

21:57-22:12

5막 · 만물화와 AI의 유흥가

21:55:15 김연규 우리는 모두 여캠이다

21:55:33 조재표 우린 그저 욕망을 사고파는 소매상 혹은 도매상

22:03:40 조재표 제미나이 무료 쓰면서 지피티 구리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행복한거라고 · 너넨 이미
불행의 굴레에 갇혔어

22:07:26 조재표 우린 다리오 바의 포주나 아가씨인거야?

22:08:45 aimaster3658 이세상은 b and m이다 · 비치와 머니다..

만물화. 이론이 스타트업 넘어서 AI 회사, 크레딧, 쿼터의 유흥가로 커집니다. '만물여캠론'이라는 이름이 붙고
(22:09:02), 설명력이 커지는 만큼 새는 데도 커지는 구간입니다.

22:12-22:35

6막 · 채무·계급·보이지 않는 노동

22:10:54 조재표 재표야 마이킹만 빨리 갖고 서울에 집만 사고 아가씨 그만두자 · 그 다음엔 우리 하고싶었던 거 하자

22:12:42 조재표 비전공자라는건 아가씨로 치면 안이쁘게 생겼거나 전통적 미의 관점에 안맞는거지

22:28:33 조재표 왜 그렇게 열심히 팔았을까 · TC도 안주는데

22:29:09 김연규 근데 왜 나 못알아주냐고 혼자상처받고 있던거네

빛, 계급, 안 보이는 노동. 마이킹(선불금) 뜻이 나오고(22:25:57), 성형, 명품, 비전공이 학벌, 브랜딩으로 번역되고, 제일 아픈 문장(아무도 안 알아주는 기술에 매달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22:35-22:47

7막 · 교리화와 반교리

22:35:17 조재표 "난 IQ가 누구보다 낮다."

22:35:45 조재표 난 나만 고상한 생각을 하는줄 알았거든 솔직히? 근데 아니더라고 · 다들 삶에 고상함을 숨겨뒀어 · 아가씨조차도

22:37:00 조재표 말로는 할 수 있게 됐구나 · 몸으로 느끼려면 얼마나 걸릴까 · 그게 너무 잔혹하다 · 내 인생의 균형추가 있다는걸 몸으로 느끼는 데에 5년이 걸렸는데

22:38:46 조재표 춤을 추자가 허무주의가 아닌거야 · 춤추지 말자가 허무주의고 · 우리 그래도 춤을 추자 · 그 춤에서 뭔가를 느끼자

22:42:27 조재표 삶의 언어가 온톨로지인데 나는

교리랑 반교리. 이 밤의 철학적 절정입니다. 에마형이 던진 허무주의 버전("걸레는 빨아봐야 걸레")에 재표형이 반박하면서 여캠론이 긍정 쪽으로 방향을 튼니다.

22:47-23:15

8막 · AI 정리문과 충전

22:52:42 조재표 다시 말하지만 옷 갈아입고 와

22:58:11 김연규 만물 여캠론은 냉소적 농담이 아니다. 기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룰살롱에서 엔지니어가 자신의 실존적 좌표를 오판하지 않고... 가장 적나라하고 엄밀한 유물론적 해체 분석이다.

23:06:46 조재표 난 내가 딸을 치는게 도망가는건줄 알았거든 · 근데 그게 아니라 충전이었어 · 딸딸이는 보조배터리 정도인거야 · 우린 그저 한 발 빼고 나아가야 해

AI 정리문이란 충전. 연규형이 붙여 넣은 생성형 AI 요약(젼플형이 "글은 다 젼플임"이라고 밝힘, 23:01:19)이 즉흥 비유를 논문 초록처럼 굳힙니다. 마지막은 타짜. 다 잃은 놈이 다시 판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재표형이 뒤집어 읽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줄들이 재밌습니다. 23:14:41 젼플형 "누가 내 울트라 가족계정 들어왔나보네", 23:14:58 범형 "익스플로잇 당하는중이노". 이론이 방금 설명한 접근권 탈취가 참가자 본인한테 실시간으로 일어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710

재표형 발화. 전체의 29.1%. 이 105분에만 22일치 발화의 9.8%를 썼습니다.

86

연규형의 감탄("와", "지린다", "깊다", "샷"). 재표형 본인은 3건입니다.

8

'조크라테스'가 불린 횡수. 조처, 조지푸스, JOAT, 후드의 철학자가 뒤따릅니다.

25개 비유, 하나씩 뜯어봅니다

각 항목은 네 칸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지금 현실에서 뭘 가리키는지, 그중 뭐가 살아남고 뭐가 부서지는지. 앞 세 개는 펼쳐뒀고 나머지는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인쇄본에선 다 펼쳐집니다.



회장님이랑 별풍선. "돈은 주시지만 받으면 안돼" (21:31:09). 돈이 몰리는 쪽으로 무대가 기울입니다.

01 여캠

핵심 · 사람

그날 밤엔

처음엔 스타트업 대표(21:30:09). 10분 안에 "우리는 모두 여캠"(21:55:15), 한 시간 뒤엔 "세상은 원래 여캠" (에마형 22:44:38)까지 커집니다. 관심이랑 돈을 얻으려고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 전부를 뜻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

일이 '보여지는 수행'이라는 걸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고프먼이 책 한 권으로 한 말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창업자, 엔지니어, 크리에이터, 직장인. 결과물이랑 같이 열정·친밀감·자신감·성장 서사까지 같이 파는 사람들.

부서지는 것

'여캠'이 다섯 가지 뜻으로 미끄러집니다. 여성 방송인 → 자기표현하는 사람 → 돈 받고 수행하는 노동자 → 플랫폼에 종속된 창업자 → 세계 자체. 앞에서 정의한 말을 뒤에서 딴 뜻으로 쓰는 게 여캠론의 제일 큰 구멍입니다.

그날 밤엔

"다들 춤을 춰"(21:30:32)로 시작해서 "그래도 춤을 추자, 그 춤에서 뭔가를 느끼자"(22:39:04)로 끝납니다. 처음엔 돈 받으려고 하는 행동, 나중엔 허무주의를 이기는 태도.

살아남는 것

같은 단어가 '강요된 수행'에서 '선택한 긍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 밤의 철학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코딩, 피치, 영업, 회의, 자기홍보, 조직이 기대하는 감정 표현.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부서지는 것

회장님이 시킨 춤을 더 열심히 추는 것도 춤이고, 무대를 바꾸는 것도 춤입니다. 둘을 안 갈라놓으면 '긍정'이 그냥 '순응'이 됩니다.

03 별풍선 · 팁 · TC

그날 밤엔

행동 직후에 바로 오는, 눈에 보이는 보상 단위. "TC도 안주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팔았을까"(22:28:33).

살아남는 것

지표가 보상을 넘어서 행동을 설계한다는 걸 제일 쉽게 보여줍니다. 바타유 식으로 말하면 별풍선은 교환이 아니라 지위를 사려고 태우는 돈(포틀래치)이고요.

지금 현실에선

SOOP 별풍선은 개당 110원, 스트리머 정산은 등급 따라 60/70/80원(일반/베스트/파트너). 하루 구매 한도 1만 개. 이게 ARR, 깃헙 스타, 밸류에이션으로 번역됩니다. 다만 그 번역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연규형이 붙여 넣은 AI 정리문(22:59:02)이 한 겁니다. 원문에서 별풍선은 세 번 나오고 재표형은 지표가 아니라 '솔 수밖에 없는 충동'(22:45:38)으로 썼습니다.

부서지는 것

별풍선은 즉시 결제고 ARR은 계약·해지·회계 인식이 다 붙는 지표입니다. 시간축이 다른 걸 같은 줄에 놓으면 장기 품질이 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04 회장님 · 큰손

그날 밤엔

"회장님을 버려야돼, 돈은 주시지만 받으면 안돼"(21:31:03). 압구정 아파트 딜은 회장이 스폰해준 거(21:37:52).

살아남는 것

돈이 몰리면 협상력이 바뀐다. 이건 그냥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리드 투자자, 대형 고객 한 곳, 단일 플랫폼. 미국 VC 표준 계약(NVCA 모델 문서)엔 보드 시트, 정보권, 프로라타, 청산우선권, 보호조항이 따로따로 붙습니다.

부서지는 것

큰돈 주는 사람이 다 착취자는 아닙니다. 위험은 사람 유형이 아니라 계약 조항, 집중도, 거절 가능성으로 재야 합니다.

05 악질애청자

그날 밤엔

"별풍 맨날 1개씩만 쏘면서 만나서 야스하자는데 어떡함"
(에마형 21:31:09).

살아남는 것

금액보다 조건이랑 행동 비용을 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적게 내고 많이 요구하는 고객, 무제한 지원 바라는 유저,
경계 넘는 팬, 독성 투자자.

부서지는 것

불편한 피드백이나 정당한 요구까지 '악질'로 밀어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06 아무 돈이나 받지 말아라

핵심 · 판정

그날 밤엔

연규형의 첫 번역(21:31:25). "그 돈에는 이름과 대가가
있는건데"(21:31:57).

살아남는 것

이 밤에서 현실 가치가 제일 높은 문장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투자자 적합성, 고객 집중도, 전략적 종속, 평판·거버넌스
리스크 심사. YC 표준 딜(\$125K에 7% + \$375K MFN
SAFE)도 돈에 이름이 붙은 예입니다.

부서지는 것

이건 재표형이 아니라 연규형 문장입니다. 원문은
'회장님을 버려라'였고, 번역이 원문보다 좋았습니다. 그건
좋은 편집이지 발명은 아닙니다.

07 트위치 · 아프리카 · 팬더 · FC2

위계

그날 밤엔

"잘되면 아프리카, ㅈ되면 FC2"(21:55:59). 트위치 클린
스트리머는 대기업 정규직(21:35:52, 22:57:32).

살아남는 것

어느 플랫폼에 서느냐가 노동 조건이랑 정체성까지
바꾼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실에선

트위치는 2024-02-27 한국 철수. 치지직·SOOP·
팬더TV·FC2로 갈리는 판이 대기업 정규직·일반 스타트업
·고위험 외주·규제 경계 사업으로 번역됩니다.

부서지는 것

플랫폼을 도덕 서열로 박아버립니다. 성공/실패
이분법이고, 살아남은 사람만 보는 생존자 편향입니다.

08 졸업 · 은퇴

출구

그날 밤엔

"돈 많이 벌었을 때 은퇴하고 피벗해서 레버리지"
(21:30:12). "마이킹만 갇고 서울에 집만 사고 아가씨
그만두자"(22:10:57).

살아남는 것

돈을 목표가 아니라 선택권 회수 수단으로 봅니다. 노자
9장이랑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엑싯, IPO, 세컨더리 매각, 경제적 독립, 하고 싶던
프로젝트로 전환.

부서지는 것

졸업 뒤에도 새 무대랑 새 의존이 생깁니다. 그리고 AI
무대에는 졸업 노드가 아예 없습니다("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 22:02:33).

09 피벗 · 레버리지

출구

그날 밤엔

지금 인기랑 자원을 다음 판 발판으로 삼는 것.

살아남는 것

창업의 옵션 가치를 정확히 봅니다.

지금 현실에선

브랜드, 자본, 네트워크, 기술을 다음 사업이나 삶으로 옮기기.

부서지는 것

모든 관계를 다음 수익의 도구로만 보면 지금 이 관계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10 마담

위계

그날 밤엔

"대표님도 비제이인데 매니징도 하는 엔터 회사" (21:34:03). "연구랑 에마형은 포주"(22:05:23), "형들은 새끼 마담이구나"(22:07:55).

살아남는 것

관리자의 이중 위치를 잔인하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현실에선

CEO, 팀장, MCN, 에이전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위에는 팔고 아래서는 사는 사람.

부서지는 것

멘토링, 돌봄, 공동생산을 전부 착취적 중개로 잃어버립니다.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범죄 이미지 하나로 묶습니다.

11 포주 · 다리오 언니

위계

그날 밤엔

"우린 다리오 바의 포주나 아가씨인거야?"(22:07:26). "다리오가 포주여서 아가씨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크레딧 왜 주겠냐고"(에마형 22:07:44).

살아남는 것

권력 사슬이랑 중개 수익을 한 장면으로 보이게 합니다.

지금 현실에선

프론티어 랩, VC, 플랫폼. 스타트업 크레딧(AWS Activate 최대 \$100K, Google for Startups 최대 \$350K)은 실제로 '대출 아닌 대출'처럼 굴러갑니다.

부서지는 것

이 지점부터 은유가 제일 심하게 새기 시작합니다. 크레딧은 계약이고 선불금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12 마이킹

핵심 · 채무

그날 밤엔

"아가씨들이 가게에 돈 빌리는거"(22:25:57). "마이킹도 중독이야"(22:11:50). "페이볼 10개 키미 5개 마이킹 갚아야지"(22:25:45).

살아남는 것

지금 현실에선

투자금, 벤처대출, 클라우드·AI 프로모션 크레딧, 미래 매출을 전제로 한 지원. 대법원 2004다27488(2004.9.3)은 성매매 전제 선불금을 무효로 봤습니다.

부서지는 것

지금의 기회랑 미래의 구속이 한 거래 안에 같이 있다는
걸 정확히 짚습니다. 그레이버 『부채』 1장이 5,000년치로
한 얘기입니다.

투자랑 강압적 선불금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릅니다. 자발성, 소유권, 손실 분담이 다 다릅니다.

13 성형 · 명품 · 의상

상징자본

그날 밤엔

"근범이는 성형 오지게 때려서 일프로 입성"(22:13:13).
"비전공자는 안 이쁘게 생긴거"(22:12:42).

살아남는 것

자기투자 비용이 진짜 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현실에선

학벌, 자격증, 포트폴리오, 개인 브랜드, 최신 프레임워크,
오피스, 발표 포장. 부르디외가 '상징자본'이라고 부른 거
그대로입니다.

부서지는 것

교육이랑 기술의 진짜 효용을 그냥 '장식'으로 깎고, 외모
비하를 다시 생산합니다.

14 텐프로 · 하꼬 · 팔리는 사람

상징자본

그날 밤엔

"우리는 하꼬네 1명방"(연규형 21:35:26). "못 파는
년들도 있다고, 팔 수 있을 때 팔아"(22:47:18).

살아남는 것

명시 안 된 서열이 실제 선택이랑 자존감에 작용한다는 걸
드러냅니다.

지금 현실에선

명문대·빅테크·유명 창업가·프론티어 모델 vs 나머지. 말
안 해도 작동하는 계급표.

부서지는 것

사람을 시장가격으로 환원하고 차별을 자연스러운 말로
만듭니다. 이 항목이 윤리적으로 제일 위험합니다.

15 엑셀방송 BJ

역할

그날 밤엔

"여캠매니저는 뭘로 대응되지, 대표님?"(21:33:16)에
대한 답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대표님도 비제이인데
매니징도 하는 엔터 회사, 혹은 엑셀방송 BJ 정도"
(21:34:03-12).

살아남는 것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랑 그 규칙에 평가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중 위치. 이걸 정확합니다.

지금 현실에선

자기도 방송하면서 남들 순위를 매기는 진행자. OKR을
운영하면서 자기도 이사회 KPI 대상인 창업자.

부서지는 것

지난 보고서는 이걸 '후원 순위표가 경쟁을 만든다'는
지표론으로 읽었는데, 원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할 얘기였지 지표 얘기가 아니었어요.

16 B&M

میم

그날 밤엔

지금 현실에선

"이세상은 b and m이다, 비치와 머니다"(에마형 22:08:45). 연구형 정리문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로 승격(22:59:02).

살아남는 것

압축력은 이 밤 최고입니다. 교리화를 촉발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고상한 기업 서사 밑에 있는 수익화·자기상품화 논리를 폭로하는 말장난.

부서지는 것

가치 창출, 협력, 공공재를 전부 위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잘 만든 편입니다.

17 욕망의 소매상 · 도매상

핵심 · 경제

그날 밤엔

"우린 그저 욕망을 사고파는 소매상 혹은 도매상" (21:55:33).

살아남는 것

마르크스 상품물신, 지라르 모방욕망을 한 줄로 압축합니다.

지금 현실에선

광고, 플랫폼, 금융, 엔터, 채용, 인플루언서, AI 서비스. 생산보다 욕망의 배분이 핵심인 경제.

부서지는 것

우정, 돌봄, 놀이, 진리 탐구를 전부 매매로 환원합니다. 아렌트가 노동·작업·행위를 갈라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8 프론티어 AI = 약물

AI

그날 밤엔

"경험도 안해본 애들이 제일 행복한거야"(22:03:25).
"너넨 이미 불행의 굴레에 갇혔어"(22:03:46).

살아남는 것

기준점이 올라가면 이전 상태가 결핍처럼 느껴진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실에선

2025-08-28부터 Claude Pro/Max에 주간 사용량 한도가 생겼고, Cursor는 2025-06 요금제 변경으로 반발을 샀습니다. 헤도닉 적응(Brickman & Campbell 1971)이 기술 소비에 그대로 옵니다.

부서지는 것

의학적 중독이랑 '더 좋은 게 좋다'는 선호를 섞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무명(無明)은 자아가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모르는 놈이 행복하다'는 밀(J.S. Mill)이 대놓고 반대한 명제입니다.

19 기본 GPT = 갈 곳 없는 서비스

AI

그날 밤엔

"헤어지고 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 그냥 오피밖에 갈 데가 없음"(22:02:33).

살아남는 것

대체재가 있어도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락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현실에선

벤더 종속, 다운그레이드, 기능 제한. 상위 모델 끊기면 체감상 선택권이 사라지는 락인.

부서지는 것

기술 제품을 성적·계급적 모욕으로 평가하니까 정작 벤치마크랑 비용 계산이 안 됩니다.

20 하네스 · 스킨십 테크닉

핵심 · 자기착취

그날 밤엔

"TC나 팀도 더 안 주는데 혼자 방구석에서 현란한 스킨십 테크닉을 연마하고, 손님이 안 알아준다고 혼자 상처받는 아가씨"(연규형 정리문 23:00:40). 비가와요형이 "표현 샷댄다"고 한 문장입니다.

살아남는 것

보상 함수랑 기술 최적화가 따로 놀 때 생기는 자기착취를 정확히 묻습니다. 한병철 『피로사회』 그 자체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과도한 프롬프트·오케스트레이션·리팩터링·완벽주의. Tidelift 조사에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약 60%가 무급이라는 숫자랑 겹칩니다.

부서지는 것

보안, 테스트, 문서화처럼 늦게 보상되는 기술까지 '손님이 몰라주는 테크닉'으로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알아줌'과 '가치 없음'은 다릅니다.

21 조커 · 조커2

실존

그날 밤엔

"레이디 가가가 상상인지 아닌지 중요한게 아니야, 그렇게 삶이 표현된다는게 중요한거야"(21:50:41). "우린 다 조커야"(21:51:34).

살아남는 것

사실 확인만으론 안 잡히는 '체험의 형식'을 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노선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서사적 정체성, 타인의 기대, 페르소나가 자기를 잡아먹는 구조. 참고로 『조커: 폴리 아 되』(2024)는 전 세계 약 2억 달러 흥행에 그쳤고 평론 점수도 낮았습니다. 재표형은 그걸 알고도 명작이라고 합니다.

부서지는 것

"조커2 못 느끼면 인생을 덜 이해한 거"(21:50:02)는 해석 권위주의입니다. 재표형이 5초 뒤 "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로 물러서긴 합니다.

22 씨앗 · 과거의 내가 나를 죽인다

실존

그날 밤엔

"씨앗을 뿌렸으면 그건 반드시 돌아와"(21:52:25). "과거의 내가 품었던 어떤 마음이 나의 죄가 날 죽인거야"(21:53:18).

살아남는 것

행위의 결과가 시간을 넘어 쌓인다는 윤리 감각. 갈라디아서 6:7, 법구경 1송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습관, 평판, 기술부채, 계약부채, 서사적 자기구속.

부서지는 것

불운이랑 구조적 피해까지 개인 업보로 돌리면 피해자 탓하기가 됩니다. '반드시'가 너무 썩니다.

23 벌은 받기 전까지가 지옥

실존

그날 밤엔

"벌은 받는 순간부터 두렵지 않아, 받기 전까지가 지옥이야"(21:49:03).

지금 현실에선

평가 대기, 해고 불안, 소송·감사 전 불확실성, 죄책감.

살아남는 것

예상 불안이 스스로 커진다는 걸 정확히 표현합니다. 세네카 편지 13장이랑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부서지는 것

실제 처벌이랑 피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랑 '정당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24 페이블 · 키미 · 잼플

AI · 20회

그날 밤엔

'페이블'은 105분 동안 20번 나옵니다. '졸업'은 2번이에요. "페이블 10개 키미 5개 마이킹 갇아야지" (22:25:45), "페이블에 맹목적일 때도 있고 ccapi 찌빠에 울기도 하는 한낱 미물들"(22:38:05).

살아남는 것

여캠론이 진짜로 겨냥한 건 스타트업이 아니라 AI 공급자 종속이었다는 걸 빈도가 말해줍니다.

지금 현실에선

프론티어 모델 구독이랑 쿼터. 이 대화 자체가 그날 밤 리밋 사건(21:59 "세시간리밋", 22:00 "여러분들의 쿼타가 터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서지는 것

그리고 같은 구간에 방이 스스로 붙인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공유지의 비극이었다"(에마형 21:59:24). 한정된 쿼터를 여럿이 나눠 쓰다 고갈된 사건인데, 이건 수직 후원 사슬(여캠론)이랑 다른 모델이에요. 지난 보고서는 이 경쟁 모델을 색인에서 통째로 뺐습니다.

25 충전 · 보조배터리

실존

그날 밤엔

"딸을 치는게 도망가는건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충전이었어, 보조배터리 정도"(23:06:46). 타짜에서 다 잃은 놈이 다시 판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계기입니다.

살아남는 것

도피냐 회복이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삶이랑의 관계로 판정해야 한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선

휴식, 쾌락, 회복 루틴, 행동 재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 '오락은 휴식을 위한 것'이라고 한 그 자리.

부서지는 것

'충전'이라고 이름만 바꾼다고 기능이 증명되진 않습니다. 에마형이 바로 "사실 이게 목표 아닐까"(23:07:55)로 수단이랑 목적을 뒤집어 버립니다.

25개 중에 '핵심'이라고 붙인 여섯 개(여캠, 춤, 아무 돈이나 받지 말아라, 마이킹, 욕망의 소매상, 하네스)만 남기면 여캠론은 꽤 튼튼한 이론입니다. 나머지 18개는 그 여섯 개를 재밌게 만드는 장식이거나, 새는 구멍이거나, 둘 다입니다.

22개 문장, 누구 말이랑 이어지나

재표형이 그날 밤에 한 말 중에 철학 명제로 읽히는 22개를 골라서, 각각 제일 가까운 원전 하나(주계보), 다른 전통에서 비슷한 말 두어 개(보조계보), 그리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 하나(대립)를 붙였습니다. 마지막 '간극'은 재표형 문장이 그 원전이랑 어디서 갈라지는지입니다. 인용은 제가 직접 원문 사이트에서 대조한 것만 원문을 실었고, 못 찾은 건 [전승]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장에서 말하던 세 사람. 소크라테스는 묻고, 디오게네스는 몸으로 보여주고, 장자는 백정 이야기로 합니다. 재표형은 셋 중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10장에서 답합니다.

01 · 21:30:04-21:30:32

“스타트업은 여캠같은거 같아 / 우린 여캠이야 / 다들 춤을 춰”

일은 결과물만 파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수행하는 거다.

어빙 고프먼 · 『자아연출의 사회학』(1956) 결론

세상 전부가 물론 무대는 아니다. 그런데 어디가 무대가 아닌지를 딱 짚어 말하기가 쉽지 않다.

앨리 혹실드 · 『감정노동』(1983) 1장

감정노동은 임금을 받고 팔리며, 따라서 교환가치를 갖는다.

기 드보르 · 『스펙타클의 사회』(1967) §1

직접 살아냈던 모든 것이 표상으로 물러났다.

한나 아렌트 · 『인간의 조건』(1958) 1장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는 다르다. 전부 '수행'으로 뭉개면 인간이 하는 일의 세 층위가 사라진다.

간극. 고프먼은 '무대가 아닌 데가 어딘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 '세상은 무대다'라고 안 했습니다. 여캠론은 그 문턱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캠의 성별화된 낙인, 동의, 몸의 위험은 스타트업으로 안 옮겨집니다.

02 · 21:30:12-21:30:26

“돈 많이 벌었을 때 은퇴하고 피벗해서 레버리지해야돼 / 졸업”

정점에서 나가라. 돈은 목표가 아니라 다음 선택권을 사는 수단이다.

노자 · 『도덕경』 9장

功遂身退，天之道。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것, 그게 하늘의 도다.

세네카 ·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1장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많이 버리는 것이다.

앨버트 허시먼 · 『탈출, 발언, 충성』(1970)

조직이 나빠질 때 선택지는 나가기(exit)만이 아니라 말하기(voice)도 있다.

간극. 노자는 '물러남'을 말했지 '레버리지'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사람만 보이는 생존자 편향이 있습니다. 못 판 사람, 빚만 남은 사람은 이 문장에 없습니다.

03 · 21:31:03-21:31:57

“회장님을 버려야돼 / 돈은 주시지만 받으면 안돼 / 그 돈에는 이름과 대가가 있다”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끌고 오는 조건, 통제권, 관계를 보라.

공자 · 『논어』 이인(里仁) 4.5

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 부귀는 누구나 바라지만 정당한 길로 얻은 게 아니면 거기 머물지 않는다.

에픽테토스 · 『엔케이리디온』 25

모든 것엔 값이 있다. 값을 안 치르고 가지려 하지 마라. 값을 안 치른 만큼 너는 다른 것을 가진 것이다.

마르셀 모스 · 『증여론』(1925)

선물은 공짜가 아니다. 받는 순간 값을 의무가 생긴다.

조르주 바타유 · 「소모의 개념」(1933) · 『저주받은 몫』

포틀래치는 지위를 사려고 부를 파괴하는 증여다. 회장님의 별풍선은 교환이 아니라 소모(dépense)다. 에마형의 "시원하게 싸주는거지"(22:08:24)가 정확히 그겁니다.

칸트 · 『윤리형이상학 정초』 4:434

값이 있는 것은 등가물로 대체될 수 있다. 모든 값 위에 있는 것, 등가물이 없는 것이 존엄이다.

디오게네스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6.38

알렉산더가 원하는 걸 말하라 하자 '햇빛 좀 비켜 주시오'. 재표형은 회장님을 버리라 하고 디오게네스는 왕도 필요 없다 합니다. 더 급진적인 쪽은 디오게네스입니다.

간극. 이 문장은 재표형 원문('회장님을 버려라')보다 연규형 번역('돈에는 이름과 대가가 있다')이 더 좋습니다. 계보상으로 연규형이 공자 쪽이고 재표형은 유흥가 쪽입니다.

04 · 21:42:32-21:43:06

“유추하는 구조를 찾고자 하면 다 있다 / 마리오의 구름과 잔디”

세계는 같은 관계 배열을 여러 영역에서 재사용한다. 비유는 그걸 찾는 도구다.

데드레 젠트너 · "Structure-Mapping" (Cognitive Science, 1983)

유추는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 체계를 옮기는 것이다. 좋은 유추일수록 관계를, 나쁜 유추일수록 겉모습을 옮긴다.

레이코프 · 존슨 · 『삶으로서의 은유』(1980) 1장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념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그레고리 베이트슨 · 『마음과 자연』(1979)

게와 바닷가재를, 난초와 앵초를, 그 넷과 나를 잇는 패턴은 무엇인가. '연결하는 패턴'.

장자 · 『장자』 제물론

모든 구분은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의 문제다. 구조가 다 있다면 그건 세계의 성질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습관일 수 있다.

간극. 젠트너는 '관계가 옮겨진다고 했지 '본질이 같다'고 안 했습니다. 구름이랑 풀이 같은 스프라이트라는 사실은 여캠론의 최고 순간이자 동시에 그 한계 선언입니다.

05 · 21:45:07-21:45:19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 / 오늘 삶이 끝나야 오늘 해야할 일을 하는거야”

유한함을 실감해야 미루던 일을 오늘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명상록』 2.11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라.

세네카 ·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01

하루하루를 하나의 삶 전체처럼 정리하라.

『하가쿠레(葉隠)』 · 야마모토 츠네토모, 1716

武士道といふは死ぬ事と見付けたり。 무사도란 죽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전도서 · 9: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갈 음부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음이니라.

에피쿠로스 ·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24-127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삶의 동력으로 쓰는 것 자체가 헛된 공포다.

간극. 이게 제일 조심할 자리입니다. 스토아는 '죽음을 기억하되 원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대표형 원문은 "죽고싶다고 생각해"(21:44:36)에서 출발합니다. 그 둘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생쥐형이 "그러지마"라고 한 게 그 차이를 본 겁니다.

06 · 21:49:03-21:49:07

“별은 받는 순간부터 두렵지 않아 / 받기 전까지가 지옥이야”

처벌 자체보다 처벌을 기다리는 상상이 더 사람을 갇아먹는다.

세네카 · 『편지』 13.4

루킬리우스여, 우리를 겁주는 것이 실제로 짓누르는 것보다 많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붓다 · 『살라타 스타』(SN 36.6)

배우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첫 화살은 고통,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이다.

카프카 · 『법 앞에서』(1915)

문지기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 남자. 문은 처음부터 그를 위한 것이었다.

제러미 벤담 ·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1789)

처벌은 그 자체로 해악이며 그 고통이 억지력이다. '받으면 안 두렵다'는 형벌 이론 전체를 뒤집는 말이다.

간극.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쥐형이 21:48:52에 먼저 "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벌이 아닌 것"이라고 했고 대표형이 11초 뒤에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33줄 친 사람이 핵심 명제를 선취한 겁니다. 생쥐형 버전은 에픽테토스 통제 이분법 쪽이고요. 다만 실제 처벌은 끝나고도 손해랑 흔적을 남깁니다. '두렵지 않다'와 '가볍다'는 다릅니다.

07 · 21:50:41-21:50:56

“레이디 가가가 상상인지 아닌지 중요한게 아니야 / 그렇게 삶이 표현된다는게 중요한거야”

작품이 사실이나보다 어떤 삶의 형식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니체 · 유고 1888, 16[40]

우리는 진리 때문에 몰락하지 않으려고 예술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 · 『시학』 9장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역사는 일어난 일을, 시는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 · 『논리철학논고』 4.1212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

플라톤 · 『국가』 10권 597e

모방은 진리에서 세 단계 떨어져 있다. 상상인지 아닌지가 바로 핵심이다.

간극. 5초 앞에 "조커2 못 느끼면 인생을 덜 이해한 거"(21:50:02)가 있습니다. 해석에 서열 매기는 건 니체가 아니라 그냥 취향 권위주의입니다. 재표형이 "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21:50:59)로 물러선 건 다행입니다.

08 · 21:51:29-21:52:11

“우린 다 조커야 / 조금 반사회적이고 덜 행복하고 / 우린 항상 뭔가에 사로잡혀있어 /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사람은 자기를 붙잡아 주는 집착 없이는 못 산다.

파스칼 · 『팡세』 브뤼슈비크 139 / 라퐁마 136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머물 줄 모른다는 데서 온다.

쇼펜하우어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7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

키르케고르 · 『죽음에 이르는 병』(1849) 1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절망을 모르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붓다 · 『초전법륜경』(SN 56.11)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taṇhā)다. 취(取, 붙잡음)가 존재를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 ·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7장

좋은 삶은 사로잡힘이 아니라 탁월성에 따른 활동이다. 붙잡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간극. '우린 다 조커'는 분석이라기보다 정체성 밈입니다. 파스칼 쪽에 훨씬 가깝고, 파스칼은 그 다음에 '그러니 신 앞에 서라'로 갔는데 재표형은 '그러니 춤추자'로 갑니다.

09 · 21:52:25-21:53:24

“씨앗을 뿌렸으면 그건 반드시 돌아와 / 과거의 내가 날 죽인거야 / 과거의 내가 품었던 마음이 나의 죄가 날 죽인거야”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뿌린 것의 수확이다.

사도 바울 · 갈라디아서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붓다 · 『법구경』 1송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

아이스킬로스 · 『아가멤논』 1564

행한 자는 겪는다(δράσαντι παθεῖν).

맹자 · 『맹자』 공손추 상, 『서경』 태갑 인용

天作孽猶可違，自作孽不可活。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 길이 없다.

『옴기』 · 42장

고통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 옴의 친구들이 틀렸다.

간극. '반드시'가 너무 쉽니다. 불운이랑 구조적 폭력까지 개인 업보로 읽으면 피해자 탓하기가 됩니다. 불교의 업(業)도 단순 보복 법칙이 아니라 의도(cetanā)의 문제입니다.

10 · 21:54:24-21:54:41

“개네도 그냥 먼저 태어나서 자리를 먹은거 아닐까 / 먼저 태어난 여캠 / 성인들을 인생선배쯤으로”

성인도 권위도 선점의 결과다. 기죽지 말고 선배 대하듯 하라.

장자 · 『장자』 천도(天道), 윤편(輪扁) 이야기

然則君之所讀者，古人之糟魄已夫！ 그러면 임금께서 읽으시는 건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임제 · 『임제록』

逢佛殺佛，逢祖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전승]

니체 · 『차라투스트라』 2부 「학자들에 대하여」

학자들은 그늘에 앉아 있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나왔다.

장자(윤편 이어서) · 『장자』 천도

得之於手而應於心，口不能言。 손으로 터득해서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지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게 22:37:21 "몸으로 느끼는 데에 5년이 걸렸는데"의 가장 정확한 원전입니다.

플라톤 · 『국가』 6-7권

철학자는 먼저 태어나서가 아니라 동굴 밖을 봤기 때문에 다르다.

간극. 이견 연구형이랑 에마형 문장입니다. 선점이 권위를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붓다나 소크라테스가 살아남은 건 먼저 태어나서가 아니라 2,500년 동안 반박을 버텨서입니다.

11 · 21:55:33-21:55:36

“우린 그저 욕망을 사고파는 소매상 혹은 도매상”

현대 경제는 물건보다 욕망을 유통한다.

마르크스 · 『자본』 1권 1장 4절 「상품의 물신성」

상품 형태의 신비는 인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노동 생산물 자체의 성격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플라톤 · 『고르기아스』 493b

절제 없는 자의 영혼은 구멍 난 항아리다. 채워도 채워도 새어 나간다.

르네 지라르 ·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1961)

우리는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욕망은 모방이다.

한나 아렌트 · 『인간의 조건』 5장

말하고 행위하는 것은 사고파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은 시장이 아니다.

간극. 우정, 돌봄, 놀이, 진리 탐구까지 매매로 환원됩니다. 재표형 말은 마르크스보다 훨씬 넓고, 넓은 만큼 반증이 안 됩니다.

12 · 22:35:45-22:36:11

“난 나만 고상한 생각을 하는줄 알았거든 / 다들 삶에 고상함을 숨겨뒀어 / 아가씨조차도”

누구에게나 숨겨둔 존엄이 있다.

맹자 · 『맹자』 고자 상(告子上) 6A6

惻隱之心，人皆有之；羞惡之心，人皆有之；恭敬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人皆有之。 측은지심, 수오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열반경』 · 대반열반경

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누가 · 누가복음 7:36-50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이라 했고 예수는 그 여자가 더 많이 사랑했다고 했다.

칸트 · 『정초』 4:434

존엄은 값이 없다. 등가물이 없다.

순자 · 『순자』 성악(性惡)

人之性惡，其善者僞也。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선은 인위다. 고상함은 숨겨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거다.

간극. 이 문장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같은 방이 같은 시간에 사람을 에이스, 똥녀, 팔릴 만한 애로 등급 매깁니다. 존엄론이 아니라 놀란 김에 나온 감탄으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재표형이 22:23:46에 지코 얘기하면서 "성선설인지는 모르겠다"고 물러선 것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13 · 22:38:46-22:39:08

“춤을 추자가 허무주의가 아닌거야 / 춤추지 말자가 허무주의고 / 우린 그래도 춤을 추자 / 그 춤에서 뭔가를 느끼자”

구조를 다 알고도 계속 움직이는 게 긍정이다. 멈추는 게 허무다.

카뮈 · 『시지프 신화』(1942) 마지막 문단

La lutte elle-même vers les sommets suffit à remplir un cœur d'homme. Il faut imaginer Sisyphe heureux.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니체 · 『차라투스트라』 1부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Ich würde nur an einen Gott glauben, der zu tanzen verstünde.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으리라.

전도서 · 9: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바가바드 기타』 · 2.47

그대에게는 행위에 대한 권리만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쇼펜하우어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4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 즉 춤을 멈추는 것이다.

간극. 카뮈의 시지프는 신들한테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재표형 문장 바로 앞엔 "회장님한테 붙어서 노는게 맞고"(22:38:17)가 있습니다. 회장님 춤을 더 잘 추는 것도 춤이고 무대를 바꾸는 것도 춤입니다. 그 둘을 안 가르면 긍정이 순응이 됩니다.

14 · 22:19:54-22:20:43

“내가 담배를 피는 이유 / 이걸 내가 날 죽이는 거야 /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자살”

천천히, 합법적으로, 느끼면서 자기를 파괴하는 습관.

카뮈 · 『시지프 신화』 첫 문장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자살이다.

프로이트 ·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

생명체는 자기 방식으로 죽으려 한다. 죽음충동.

세네카 · 『편지』 70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현자는 살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만큼 산다.

도스토옙스키 · 『지하로부터의 수기』(1864) 1부

이빨이 아픈 데서 쾌락을 찾고, 자기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걸로 자유를 증명하는 지하인. 담배=적극적 자살의 문학적 원형은 하이데거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피노자 · 『에티카』 3부 정리 6

각 사물은 자기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한다(conatus). 자기파괴는 본성이 아니라 외부 원인이다.

간극. 카뮈는 자살을 문제로 세웠지 답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재표형 말은 '죽음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자기파괴를 느끼면서 하자'입니다. 이걸 철학적 수사로 다 덮을 수 없는 문장이라서, 이 글에서 유일하게 판정 대신 걱정을 남깁니다.

15 · 23:06:46-23:07:42

“딸을 치는게 도망가는건줄 알았거든 / 그게 아니라 충전이었어 / 보조배터리”

휴식이랑 쾌락은 도피가 아니라 다시 나가기 위한 충전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6장, 1176b

오락은 휴식을 위한 것이고, 휴식은 활동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6.46

광장에서 자위하면서: 배를 문질러서 배고픔도 가시면 좋으련만.

에피쿠로스 ·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31

쾌락이 목적이란 할 때 우리는 방탕의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아우구스티누스 · 『고백록』 2권

쾌락은 충전이 아니라 방향 잃음이다.

간극. 한병철보다 파스칼이 더 맞는 자리입니다. 사냥꾼이 원하는 건 토끼가 아니라 사냥이라는 논변(『팡세』 139)이, 쿼터가 다 떨어져도 멈추지 않는 이 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성과 압력이 아니라 정지를 못 견디는 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충전'으로 바꿨다고 기능이 증명되진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준은 '그 다음에 활동으로 돌아갔느냐'입니다. 에마형이 1분 뒤 "사실 이게 목표 아닐까"(23:07:55)로 수단이랑 목적을 뒤집는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경고한 실수입니다.

16 · 22:35:17

“난 IQ가 누구보다 낮다 / IQ -200의 남자 / JOAT여서 GOAT”

똑똑함 말고 연결 감각으로 산다.

소크라테스 · 플라톤 『변론』 21d

나는 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둘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모르지만, 그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자 · 『도덕경』 20장

俗人昭昭，我獨昏昏。 세상 사람들은 다 밝은데 나 혼자 어둡다.

바울 · 고린도전서 1:27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 『박학한 무지』(1440)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본인 · 『변론』 23b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상대방에게 정의를 말하게 하고 그걸 다시 묻는 방법(엘렐코스)입니다. 단언 먼저 하고 IQ 낮다고 하는 건 그 반대 순서입니다.

간극. 대표형은 '세상은 여캠', '씨앗은 반드시 돌아온다'를 단언한 뒤에 IQ가 낮다고 합니다. 그건 무지의 자각이 아니라 반박을 미리 막는 자기 브랜딩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방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춘 사람인 건 맞습니다.

17 · 21:33:04-21:33:10

“야근을 하다가 깨달았느니라 / 나는 여캠이다”

몸으로 일하다가 구조가 보였다.

방거사(龐蘊) · 『방거사어록』

神通並妙用，運水及搬柴。 신통과 묘용이란 물 길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장자 · 『장자』 양생주, 포정해우(庖丁解牛)

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道)이니, 기술보다 앞선 것입니다.

시몬 베유 · 『공장 일기』(1934-35)

공장에서 나는 노예의 표식을 영원히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만 배운 것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학』 8권 /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관조는 여가(scholē)에서 온다. 야근에서는 안 온다.

간극. 야근에서 깨달았다는 건 여캠론에서 제일 설득력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험이 문제를 보여주지, 그 답의 범위까지 보증하진 않습니다.

18 · 22:41:47-22:42:27

“삶의 언어가 온톨로지인데 나는 / 작년 12월에만 해도 스니 어렵게 썼는데”

존재론은 교과서 말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뭘 파는지 생활어로 분류하는 것.

비트겐슈타인 · 『철학적 탐구』 §116

우리는 낱말을 형이상학적 사용에서 일상적 사용으로 되돌린다.

공자 · 『논어』 자로 13.3

必也正名乎！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名不正，則言不順。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

장자 · 『장자』 외물(外物)

得魚而忘筌。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잊어라.

하이데거 · 『존재와 시간』 §7

존재 물음은 일상어로 안 된다. 일상어가 바로 존재 망각이다.

간극. 재표형의 온톨로지는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빠져나오는가'의 생활 분류입니다. 그건 진짜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유흥가 은어가 그대로 세계의 범주로 굳는 것입니다. 통발은 잊어야 하는데 여캠론은 통발을 계속 들고 다닙니다.

19 · 21:31:22, 21:55:59, 22:57:32

“까딱 실수하면 팬더티비 / 잘되면 아프리카 스되면 FC2 / 트위치 클린 스트리머 = 대기업 정규직”

무대가 계급이다. 어디 서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다.

피에르 부르디외 · 『구별짓기』(1979)

취향은 분류하고, 분류하는 자를 분류한다. 장(場) 안의 위치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정한다.

막스 베버 · 『경제와 사회』 「계급, 신분, 정당」

계급은 시장 위치, 신분은 명예의 위치다. 둘은 다르게 움직인다.

플라톤 · 『국가』 415a

금, 은, 동의 인간. 고귀한 거짓말.

존 롤스 · 『정의론』(1971) §12

공정한 기회균등. 태어난 무대가 도착지를 정하면 안 된다.

간극. 성공/실패 이분법이고 플랫폼에 도덕 등급을 박습니다. 중간 경로, 여러 플랫폼, 비상업 경로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20 · 22:10:57-22:11:50, 22:25:57

“마이킹도 중독이야 / 서울에 집만 사고 아가씨 그만두자 / 마이킹 갇자”

선불금은 지금의 자유를 주고 미래의 노동을 묶는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 『부채, 그 첫 5,000년』(2011) 1장

빛은 도덕이 된 폭력이다. '빛은 갇아야 한다'는 말이 모든 착취를 정당화한다.

니체 · 『도덕의 계보』 2논문 §4

죄(Schuld)라는 도덕 개념은 빚(Schulden)이라는 물질 개념에서 왔다.

『잠언』 · 22:7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대법원 · 2004다27488 (2004.9.3)

윤락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 채권은 무효다.

애덤 스미스 · 『국부론』 2편

신용은 협력을 시간 너머로 늘리는 장치다. 빚이 다 구속은 아니다.

간극. 투자, 벤처대출, AI 크레딧, 유흥업소 선불금은 법적으로도 자발성으로도 다릅니다. 구조가 닮았다는 건 맞고, 같다는 건 틀립니다. 그리고 '중독'이라 부르려면 통제 상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문엔 그 증거가 없습니다.

21 · 22:28:33, 23:00:40

“TC도 안주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팔았을까 / 보상과 괴리된 기술 집착은 자기착취”

아무도 안 알아주는 기술에 매달리는 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것이다.

한병철 · 『피로사회』(2010)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막스 베버 ·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5)

소명(Beruf)으로서의 노동. 일 자체가 구원의 표시가 된다.

장자 · 『장자』 인간세(人間世), 산목(散木)

쓸모없는 나무라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

리처드 세넷 · 『장인』(2008)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하려는 욕망은 착취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충동이다.

간극. 이 문장은 재표형 질문(22:28:33)을 연구형 AI 정리문이 명제로 굳힌 것입니다. 시장이 지금 값을 안 매긴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안, 테스트, 문서는 늦게 보상되는 기술입니다. 손님이 몰라주는 테크닉이랑 쓸데없는 테크닉은 다릅니다.

22 · 22:03:25-22:03:46, 23:00:03

“프론티어 맛본 자는 약물 중독 / 가장 행복한 계층은 프론티어의 맛을 모르고 사는 직장인 / 모르는 자만이 번뇌에서 자유”

좋은 걸 알면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모르는 게 행복이다.

플라톤 · 『국가』 7권 514a-517a

동굴에서 풀려나 빛을 본 사람은 다시 내려가도 예전처럼 그림자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

전도서 · 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브릭먼 · 캠벨 ·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1971)

쾌락은 기준점에 적응한다. 더 좋은 것은 곧 보통이 된다.

존 스튜어트 밀 · 『공리주의』(1861) 2장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간극. 불교에서 무명(無明)은 자유가 아니라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모르는 자만이 번뇌에서 자유'는 정확히 거꾸로 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쿼터 걸리면 짜증나는 걸 약물 중독이라 부르려면 금단, 통제 상실, 기능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원문엔 '더 좋은 게 좋다'뿐입니다.

22개 중에 원전이랑 제일 가깝게 붙는 건 5(마르쿠스 2.11), 6(세네카 편지 13), 12(맹자 6A6), 13(카뮈·니체), 18(비트겐슈타인 §116)입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건 14(담배)랑 22(모르는 놈이 행복)입니다. 앞엿것은 원전이 답을 안 준 자리고, 뒤엿것은 원전이 반대로 말한 자리입니다.

돈 얘기가 15분 만에 죽음 얘기가 됐습니다

21:44부터 21:57까지, 13분입니다. 회장님이랑 팬더티비 얘기하던 방이 갑자기 죽음, 벌, 조커, 씨앗을 얘기합니다. 여캠론이 그냥 드립이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안 끝났고, 그래서 이 글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에서 출발하는 메멘토 모리

21:44:36 조재표 죽고싶다고 생각해

21:44:41 크로아상생쥐 그러지마

21:44:59 김연규 죽어야겠단 생각으로 사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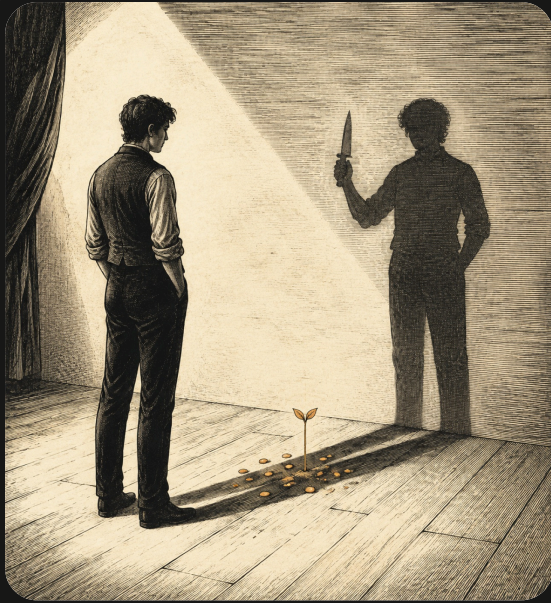
21:45:07 조재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 · 오늘 삶이 끝나야 오늘 해야할 일을 하는거야 · 인간이 뭐 강한줄 알아?

스토아 철학자들이 매일 하던 훈련이 이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라'('명상록' 2.11)고 썼고, 하가쿠레는 아예 '무사도란 죽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표형 문장은 거기 딱 붙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스토아는 '죽음을 기억하되 원하지 않는다'고, 재표형은 '죽고 싶다'에서 시작합니다.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오늘 할 일을 한다) 출발이 정반대예요. 생쥐형이 5초 만에 "그러지마"라고 한 건 그 차이를 본 겁니다. 방에서 유일하게요.



순서를 정확히 적으면, 생쥐형이 먼저입니다.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벌이 아닌 것" (크로아상생쥐 21:48:52). 그 다음 재표형이 "벌은 받는 순간부터 두렵지 않아, 받기 전까지가 지옥이야"(21:49:03). 세네카 편지 13.4: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조커를 죽인 건 조커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
그건 과거의 내가 날 죽인거야"(21:52:53-
21:53:08).

조커2, 씨앗, 그리고 과거의 나

21:50:41 조재표 조커2가 진짜 명작이야 ·
레이디 가가가 상상인지 아닌지 중요한게 아니야 ·
그렇게 삶이 표현된다는게 중요한거야

21:51:34 조재표 우린 다 조커야 · 조금
반사회적이고 조금 덜 행복하고 · 우린 항상 뭔가에
사로잡혀있어 · 근데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21:52:25 조재표 내가 뭔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건 반드시 돌아와

『조커: 폴리 아 되』(2024)는 전 세계 흥행 2억 달러 남짓에 평론도 갈렸습니다. 재표형은 그걸 알면서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정확해요. 아서 플렉을 죽인 건 조커를 기대하던 사람이고, 그 기대는 아서가 과거에 뿌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6:7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법구경 1송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이 같은 말입니다.

'우린 다 조커'는 파스칼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못 있는 데서 온다'(『팡세』 139). 다만 파스칼은 거기서 '그러니 신 앞에 서라'로 갔고 재표형은 한 시간 뒤에 '그러니 춤추자'로 갑니다. 그 갈림이 6장입니다.

조심할 건 '반드시'입니다. 불운이랑 남이 저지른 폭력까지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건 업보가 아니라 피해자 탕하기가 됩니다. 욕기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밤의 절정, 22:38

에마형이 제일 어두운 버전을 던집니다. "걸레는 빨아봐야 걸레니까 춤을 추자"(22:38:54), "어차피 창녀일 뿐"(22:38:22). 재표형이 30초 만에 뒤집습니다. 같은 문장 '춤을 추자'를 두 사람이 정반대 뜻으로 씁니다. 아래 두 칸이 그 두 뜻입니다. 화면에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이 옮겨 갑니다.

춤추지 말자 (허무주의)

22:38:22 aimaster3658 어차피 창녀일 뿐

22:38:54 aimaster3658 걸레는빨아봐야걸레니까 춤을추자

구조를 알았으니 의미도 없다. 춤은 그냥 돈 받는 동작이다. 쇼펜하우어가 여기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4부). 그리고 파스칼의 '방 안에 못 있는 인간'도 이쪽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7

그래도 춤을 추자 (긍정)

22:38:46 조재표 춤을 추자가 허무주의가 아닌거야 · 춤추지 말자가 허무주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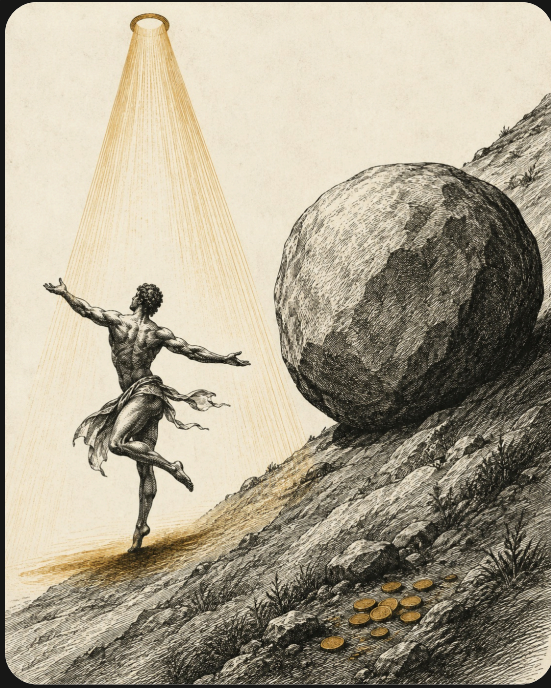
22:39:04 조재표 우리 그래도 춤을 추자 · 그 춤에서 뭔가를 느끼자

구조를 다 알고도 움직이는 게 긍정이고 멈추는 게 허무다. 카뮈의 시지프, 니체의 춤추는 신, 전도서 9:7('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기타 2.47('행위에만 권리가 있고 결과에는 없다')이 다 이쪽입니다.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Il faut imaginer Sisyphe heureux.

카뮈, 『시지프 신화』 마지막 문단



카뮈는 시지프스가 '내려오는 길'에 의식이 깨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위를 미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오는 시간이 그의 것입니다. 재표형의 '한 발 빼고 나아가야 해'(23:07:42)가 딱 그 내리막입니다.

근데 어느 춤이나

여기서 한 번 뼈떡하게 봐야 합니다. 재표형이 '그래도 춤을 추자'라고 하기 30초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38:17 조재표 회장님한테 붙어서 노는게맞고

참고로 여기서 카뮈보다 더 가까운 원전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요. 수고가 헛되다는 걸 다 인정하고 나서 '그래도 먹고 마시고 네 손이 할 일을 힘껏 하라'(9:7-10)로 가는 구조가, 22:20:48의 "그래 춤이나 추자, 오늘도 한 탕 크게 땡겨서 마이킹을 갇자"랑 온도가 같습니다. 카뮈는 반항의 영웅이고 전도서는 체념 위에 바로 노동을 엮습니다. 재표형 문장은 후자 쪽입니다.

회장님 춤을 더 잘 추는 것도 춤이고, 회장님을 버리고 다른 무대를 만드는 것도 춤입니다. 카뮈의 시지프스는 신들한테 반항하는 사람이지만 신들한테 붙어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표형 문장은 그 둘을 안 갈라놨습니다. 안 가르면 '긍정'이 그냥 '순응'이 됩니다. 니체가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으리라'고 한 바로 다음 문장이 '종력의 영을 죽이자'입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는 춤이지, 무거운 걸 더 잘 드는 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의 판정은 이렇습니다. '춤추지 말자가 허무주의'는 맞습니다. '그래도 춤을 추자'도 맞습니다. 다만 그 뒤에 한 줄이 빠졌어요. **어느 무대에서, 누구 돈으로, 그만둘 권리를 갖고 추느냐.** 그 한 줄이 있으면 카뮈고, 없으면 회장님 취향 맞추기입니다.

돈은 위에서 아래로, 빛은 아래에서 위로

여캠론에서 제일 실용적인 개념이 마이킹입니다. 재표형 정의는 짧습니다. "아가씨들이 가게에 돈 빌리는거" (22:25:57). 지금 쓸 돈을 먼저 받고, 나중 노동으로 갚는 것. 그걸 세 무대에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코인은 아래로 흐르고, 점선의 의무는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킹도 중독이야"(22:11:50). 니체는 '죄 (Schuld)'가 '빚(Schulden)'에서 왔다고 했습니다(『도덕의 계보』 2논문 §4).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 틀리나

맞는 부분부터요. 지금의 기회랑 미래의 구속이 한 거래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건 정확합니다. AWS Activate는 최대 10만 달러, Google for Startups Cloud는 최대 35만 달러 크레딧을 줍니다. 공짜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 위에 짓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레이버가 『부채』에서 5,000년 걸려 한 말을 재표형은 "페이블 10개 키미 5개 마이킹 갚아야지"(22:25:45) 한 줄로 했습니다.

틀리는 부분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안 갚아도 되는 돈'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마이킹은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라서 법이 채권자를 안 도와주는 거고(대법원 2004다27488, 윤락 전제 선불금 무효), SAFE랑 크레딧은 투자자가 처음부터 손실을 떠안기로 계약한 겁니다. 하나는 채권자를 벌주는 거고 하나는 채권자가 고른 겁니다. 구조가 닮았다까지는 맞고, 같다는 건 틀립니다. 같다고 부르는 순간 진짜 강압에 묶인 사람이랑 스톡옵션 기다리는 사람이 같은 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요. 중독이라 부르려면 통제 상실이랑 반복이 있어야 하는데, 원문에 그 증거는 없습니다. 있는 건 "서울에 집만 사고 아가씨 그만두자"(22:11:04)라는, 갚고 나면 자유롭다는 희망뿐입니다. 그 희망 자체가 마이킹이 굴러가는 연료라는 게 그레이버 책 요지고요.

어느 무대에 서느냐가 계급입니다

"까딱 실수하면 팬더티비"(21:31:22), "잘되면 아프리카 ㅈ되면 FC2"(21:55:59), 그리고 연규형 정리문의 "트위치 클린 스트리머 = 대기업 정규직"(22:57:32). 방 사람들 머릿속 사다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은 그게 번역되는 자리입니다.



위로 갈수록 규칙이 많고 안전하고 지루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규칙이 없고 위험하고 돈이 빠릅니다. 트위치는 2024년 2월 27일에 한국을 뺐습니다. 제일 위 칸이 실제로 사라진 겁니다.

트위치 · 치지직

클린, 구독 기반,
규칙 많음

대기업 정규직
연봉, 복지, 승진 사다리

안전하고 느리다

SOOP(아프리카) 카)

별풍선 110원, 정산
60~80%

일반 스타트업
지표 경쟁, 투자 라운드

잘되면 여기

팬더TV

19+, 후원 의존, 한
번 가면 못 돌아옴

고위험 스타트업 · 외주

"까딱 실수하면"

돈은 빠르고 낙인은 남는다

FC2

규제 밖, 일본계

규제 경계 사업

"조되면"

여기 가면 사다리가 없다

오피

"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 그냥
오피밖에"

기본 모델만 남은 유저

다운그레이드, 락인

AI 무대의 바닥

사다리 자체는 부르디외 『구별짓기』 그대로입니다. 어느 장(場)에 있느냐가 뭐가 가능한지를 정한다는 거요. 베버는 여기서 '계급'(시장 위치)이랑 '신분'(명예 위치)을 갈라놨는데, 여캠론 사다리는 그 둘을 한 줄로 합쳐 버립니다. 그래서 팬더TV가 돈은 더 벌어도 아래 칸에 갑니다. 그건 돈의 사다리가 아니라 명예의 사다리예요.

부서지는 데는 뻥합니다. 성공/실패 두 칸밖에 없고, 중간 경로랑 여러 무대 동시에 서는 사람이랑 비상업 경로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롤스식으로 말하면 태어난 무대가 도착지를 정하면 안 되는데, 이 사다리는 정확히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재표형이 "비전공자는 안 이쁘게 생긴 거"(22:12:42)라고 할 때, 그건 관찰이면서 동시에 그 사다리를 한 번 더 못 박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다섯 사람의 합작입니다

재표형이 씨를 뿌렸고, 연규형이 이름을 붙이고 문장으로 만들었고, 에마형이 끝까지 밀어서 부서지는 데를 보여줬고, 비와형이 '왜 이해가 되냐'고 물었고, 생쥐형이 '그러지마'라고 했습니다. 다섯 명 합쳐서 2,436줄 중 2,078줄(85.3%)입니다. 성진형(235줄)까지 넣으면 93.6%예요.



왼쪽부터 편집자, 광대, 야근하는 사람, 반쯤 웃는 수행자, 후드 쓴 사색가. 이름표는 비워뒀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조재표 · 재표형

원형 비유의 발명자 · 생활 온톨로지스트

710

105분 발화 (29.1%)

7,213

22일 전체 발화

18.5%

새벽 0~5시 비율

21:30:29 조재표 우리 여캠이야 · 다들 춤을 춰

22:35:58 조재표 다들 삶에 고상함을 숨겨뒀어

22:39:04 조재표 우리 그래도 춤을 추자 · 그 춤에서 뭔가를 느끼자

장면 사이의 구조를 먼저 감지하고, 그걸 몸이랑 시장 언어로 압축하고, 방이 감탄하면 더 큰 명제로 올라갑니다. 정의를 세우고 사례를 넣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정의가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22일 내내 회사 얘기, 담배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9월 4일에 한 덩어리로 묶였습니다.

잘한 것

추상적인 권력 관계를 5초 안에 체감되는 장면으로 바꿉니다. '돈에는 조건이 있다', '알아주지 않는 기술', '그래도 춤을 추자'는 실제로 사람 판단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춥니다("난 IQ가 누구보다 낮다").

새는 것

비유가 먹힐수록 범위를 넓혀서 결국 '세상은 원래 여캠'까지 갑니다. 구체적인 사람을 외모·시장가치로 등급 매기고, 죽음을 연료처럼 씁니다. 반박이 들어오기 전에 "표면만 보면 다 버리는거야"(22:34:22)로 방패를 세우는 버릇도 있습니다.

김연규 · 연규형

편집자 · 체계화 · 정전화 장치

649

105분 발화 (26.6%)

36,334

22일 전체 발화

12.5%

새벽 0-5시 비율

21:31:25 김연규 아무돈이나 받지말아라 라는말을 저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조크라테스

22:39:50 김연규 그걸 재표형은 여캠론이라 부르고 김연규는 시지푸스라고 부르며 에마형은
똥싸기라고 부른다

22:59:02 김연규 별풍선을 받으려 춤추는 여캠과, 후속 투자를 받으려 밤새 코드를 밀어 넣는
파운더의 본질적 좌표는 같다

재표형이 장면을 만들면 연규형이 명제로 포장합니다. '조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21:31:40), '돈에는 이름과 대가가 있다'로 번역한 것도, 후반에 AI 정리문을 방에 다시 들여온 것도 연규형입니다. 이 방에서 22일 동안 36,334줄을 쳤고, 그 105분에도 649줄입니다.

잘한 것

흩어진 드립에서 검토 가능한 중간 명제를 뽑아냅니다. '돈의 출처에 권리와 조건이 붙는다'는 여캠론에서 제일 튼튼한 부분인데, 그건 재표형 원문보다 연규형 번역입니다.

새는 것

정리하는 순간 잠정적 비유가 완결된 이론처럼 굳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 "본질적 좌표", "가장 엄밀한 유물론적 해체"는 근거보다 확신을 공급하는 말입니다. 105분 동안 감탄 발화가 86건입니다. 편집 능력이 검증 능력을 눌렀습니다.

aimaster3658 · 에마형

가속기 · 극단화 장치 · 희극 코러스

564

105분 발화 (23.2%)

22,865

22일 전체 발화

19.1%

새벽 0-5시 비율

21:31:09 aimaster3658 악질애청자인데 별풍맨날 1개씩만쏘면서 만나서 야스하자는데 어떡함?

22:11:01 aimaster3658 직업의 귀천이없다가 아니라 모든직업이 다 여캠이다

22:38:54 aimaster3658 걸레는빨아봐야걸레니까 춤을추자

명제를 다듬는 대신 제일 먼 끝까지 바로 밀어붙입니다. 사고실험처럼 작동해요. '어차피 창녀일 뿐'이라는 허무주의 버전을 던진 덕에 재표형의 '춤추지 말자가 허무주의'라는 핵심 반론이 나왔습니다. B&M도 에마형 말장난(22:08:45)입니다.

잘한 것

이론의 붕괴 지점을 제일 빨리 노출합니다.
극단으로 가져가면 어디서 불쾌해지고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새는 것

충격이랑 진리를 섞습니다. 욕설, 성적 비하, 자살 드립이 반복돼서 방의 윤리 온도를 계속 낮추고, 웃음이랑 '소름'을 합의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듣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를 다섯 번쯤 말하는데, 그 말이 제일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비가와요 · 비와형

운영 현장의 증인 · 독자 반응계

122

105분 발화 (5.0%)

11,566

22일 전체 발화

14%

새벽 0-5시 비율

21:39:00 비가와요 페이블 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 어안이 병병하노

22:48:51 비가와요 근데 시발 이게 왜 이해가 되어하는거냐

23:01:44 비가와요 TC나 팀도 더 안 주는데 혼자 방구석에서 현란한 스킨십 테크닉을 연마하고, 손님이 안 알아준다고 혼자 상처받는 아가씨 · 표현 샷댄다

그 시간에 실제로 쿼터 오버부킹이랑 시트 리밋을 처리하면서 대화에 들어옵니다(21:57:59, 21:59:16). 추상 얘기가 현장 장애랑 어디서 만나는지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타짜 장면을 손동작까지 복원한 것도(23:04:14) 비와형입니다.

잘한 것

모르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어야 하나"는 이론이 잘 먹힌다는 거랑 맞다는 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찌른 말입니다. 105분 중 제일 좋은 반론이었습니다.

새는 것

혼란이랑 웃음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체계적인 반례를 안 만듭니다. ㅋㅋ 비율 8.7%로 방 리듬을 강화하는 쪽에 자주 섭니다.

크로아상생쥐 · 생쥐형

윤리적 브레이크 · 전통철학 통역

33

105분 발화 (1.4%)

5,315

22일 전체 발화

1.8%

새벽 0~5시 비율

21:44:41 크로아상생쥐 그러지마

21:49:07 크로아상생쥐 저게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의 모습이지

22:05:38 크로아상생쥐 저게 여캠이라는 말을 다른말로 바꾸면 진짜 미친 깨달음이 될거같다..

33줄밖에 안 쳤는데 기능이 제일 뚜렷합니다. 죽음 얘기에 5초 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재표형의 유희가 언어를 불교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 글 전체의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여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남나.'

잘한 것

방에서 유일하게 스토아의 메멘토 모리랑 재표형의 '죽고 싶다'가 다르다는 걸 본 사람입니다. '벌은 받기 전까지가 지옥'도 사실 생쥐형이 11초 먼저 말했습니다(21:48:52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벌이 아닌 것"). 그리고 구조랑 낙인을 분리하는 검증 질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새는 것

브레이크가 짧고 바로 웃음에 흡수됩니다. '부처', '색즉시공'은 엄밀한 불교 논증이 아니라 즉흥 라벨로 쓰여서, 색즉시공을 '다 똑같다'로 읽는 오독 여지를 남겼습니다.

성진형(235줄)은 비유를 엘프, 씹덕, 신타일, 마담 계급으로 넓히는 확장 실험자였고, 켄플형(55줄)은 후반에 들어와서 "1시간동안 뭘얘기를하는거임"(22:25:07)이라고 물은 뒤 AI 정리문을 가져온 외부 독자였습니다. 두 사람 덕에 이 이론이 밖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보였습니다.

여캠론은 9월 4일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CSV를 뒤져보니까 여캠론의 씨앗은 17일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8월 18일 새벽 1시 25분, 재표형이 이렇게 씁니다.

08-18 01:25 조재표 회사 들어올 때 올해 우리 돈 안벌어도 된다·와서 재표님 꿈 펼쳐라 해서 갔는데·뭐 하자하면 ROI 안나온다고 빠꾸먹었는데·이거 사기당한거냐?

08-18 01:26 조재표 갑자기 사창가 끌려온 창남 개발자 된거같은·그러면 와서 개같이 일해달라고 했어야지·꿈 운운하지 말고

'사창가에 끌려온 창남 개발자:' 9월 4일의 "우린 여캠이야"는 이 문장의 완성형입니다. 17일 동안 비유를 몸으로 살다가 그날 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세계 나왔던 거예요. 즉흥이 아니라 숙성이었습니다.

같은 새벽에 나온 말들이 여캠론의 부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잠", "개발자 나밖에 없어서", "사실 난 선택권이 없어, 미팅을 한 이상 빨리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고" (회장님이랑 마이킹), "2개월만에 열정 소진했어, 뇌 빠고 코딩함"(TC도 안 주는데), "12살 때부터 아프리카 티비 봐서 오디오 3초만 비어도 발작버튼 눌림"(왜 비유가 여캠이었는지), "그냥 강의나 팔고 살 빼서 몸이나 팔아야지" (팔 수 있을 때 팔아).



"야근을 하다가 깨달았느니라, 나는 여캠이다" (21:33:04).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재표형은 야근 중에. 흥상에 금이 간 건 제가 시킨 겁니다.

22일의 연대기

날짜	재표형이 한 말	9월 4일에 뭐가 됐나
08-14	방 입장. "회사에서 구르다보니 커밋수가 많아졌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담배 = 합법적 자살 (22:20)
08-16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싶음 · 담배 피다 빨리 죽겠습니다"	죽고 싶다에서 출발하는 메멘토 모리(21:44)
08-18	새벽 575줄. "사창가 끌려온 창남 개발자", "선택권이 없어", "2개월만에 열정 소진", "크몽과 혁신 사이의 미묘한 부분", "12살 때부터 아프리카 티비"	여캠론 본체. 회장님, 마이킹, 춤, 플랫폼 사다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08-30	"납기 못 지킨다고 나에게 테크리드가 걸맞지 않다고 한 우리 회사 사람들", "내가 병목은 맞지", 세 가지 레슨런(울고 화내고 개발 미뤄라 / 엄마도 맞춤 납기 / 품질기준 높이지 마)	"TC도 안주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팔았을까"(22:28)
09-01	"또 멘헤라 시작됐다 · 죽고싶다", "대표님이 재표님의 설명이 와닿지가 않는대", "자살버튼에 손 올려두고 일하긴 하거든", "내가 진정성 있게 살려는게 그렇게 문제야?", "회사 오길 잘했다, 매일매일 ㅈ갈아, 얼마나 성장하려고"	벌은 받기 전까지가 지옥 (21:49). 오늘 삶이 끝나야 오늘 할 일을 한다(21:45)
09-02	"회사일을 30프로만 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책임감이 30프로로 줄었어", "방법론을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방법론들을 도출해낸 사고방식, 철학까지 훑쳐야됨"	한 발 빼고 나아가야 해 (23:07). 삶의 언어가 온톨로지(22:42)
09-04 16:47	"AI는 온톨로지를 전혀 못한다"	4시간 42분 뒤 여캠론 시작

보이시죠. 이건 드립이 아니라 두 달치 일기예요. 2개월차, 회사 유일 개발자, 꿈 펼치라고 데려와서 ROI로 빠꾸, 테크리드 자격 없다는 말, 납기 협상, 대표님이 설명이 안 와닿는대. 그 위에 12살부터 본 아프리카TV의 언어가 얹혀서 여캠론이 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광장이랑 신발 가게 언어로 말했다면 재표형은 아프리카TV랑 룸살롱 언어로 말합니다. 언어는 자기가 사는 데서 옵니다.

스스로에 대해 한 말 다섯 개

"야근을 하다가 깨달았느니라"(21:33:04). 이게 제일 믿을 만한 자기 서사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회사 노동의 몸 감각에서 왔다는 거요. 선불교에서 방거사가 '물 길고 나무 나르는 게 신통'이라고 한 그 자리. 다만 경험이 문제를 보여주는 거지 답의 범위까지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난 IQ가 누구보다 낮다"(22:35:17). 소크라테스의 '나는 모른다'랑 겹은 같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하고 나서 묻습니다. 재표형은 '세상은 여캠'이라고 단언하고 나서 IQ가 낮다고 합니다. 그건 무지의 자각보다 반박을 미리 막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방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춘 사람인 건 맞고요.

"삶의 언어가 온톨로지"(22:42:27). 재표형이 온톨로지 좋아하는 건 22일 내내 나옵니다. 09-04 오후엔 "AI는 온톨로지를 전혀 못한다"고도 했고요. 재표형한테 온톨로지는 교과서 존재자 목록이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뭘 팔고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빠져나오나'를 분류하는 생활 언어입니다. 비트겐슈타인 §116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 언어가 세계의 범주로 굳는 거고요.

"균형추를 몸으로 느끼는 데 5년"(22:37:21). 이 밤의 제일 좋은 자기 제한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거랑 몸으로 사는 거는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장자 「천도」의 수레바퀴 깎는 윤편이 딱 이 말을 합니다. '손으로 터득해서 마음으로 응하는 거지 입으로는 말 못 한다(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그래서 임금이 읽는 책은 옛사람 찌꺼기다.' 22일치 CSV에서 재표형이랑 제일 가까운 고전 한 줄을 꼽으라면 이겁니다. 방이 '깨달았다'고 외칠 때 재표형은 '몸으로 느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게 너무 잔혹하다'고 합니다. 이 문장 하나로 소크라테스라는 별명값은 합니다.

"담배는 합법적 자살"(22:20:03), "딸딸이는 충전"(23:07:34). 둘 다 자기 행위를 다시 이름 붙이는 겁니다. 하나는 파괴 쪽으로, 하나는 회복 쪽으로. 이 글에서 유일하게 판정 대신 걱정을 남기는 자리가 앞엿것입니다. 9-1 18:42 "자살버튼에 손 올려두고 일하긴 하거든"이랑 같이 읽으면 철학으로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 디오게네스 · 장자,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다들 삶에 고상함을 숨겨뒀어, 아가씨조차도"
(22:35:58-22:36:08). 이 문장 하나가 여캠론 전체보다 크다고 저는 봅니다.

	닭은 데 (진짜)	안 닭은 데 (방의 아침)
소크라테스	시장 언어로 고상한 자기상을 흔든다. 자기도 대상에 넣는다("나는 여캠이다"). 권위를 탈신화한다("먼저 태어난 여캠").	엘렝코스(되묻기)가 없다. 질문 대신 격언을 던진다. 아포리아가 대화의 끝이 아니라 감탄의 시작이다. '모른다'를 단언 뒤에 붙인다.
디오게네스	몸의 언어로 체면을 부순다. 돈, 성, 담배, 자위를 철학 밖으로 안 밀어낸다. '후드의 철학자'(22:53:45).	디오게네스는 자기 삶 전체를 자립 실험으로 만들었다. 재표형은 회장님, 크레딧, 플랫폼에 의존한 채로 말한다. 디오게네스는 자기를 낮췄고 재표형은 남을 '아가씨', '똥녀'로 낮춘다. 비대칭이다.
장자	고정된 구분의 불안정을 감지한다 (구름과 잔디, 우린 다 조커, 현실인지 상상인지). 백정 이야기처럼 기술에서 도를 본다.	장자의 상대주의는 한 관점이 세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여캠론은 한 비유가 너무 성공해서 모든 걸 흡수한다. 나비 꿈은 문을 여는데 '세상은 원래 여캠'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제 판정은 이겁니다. **조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후계자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 시대의 카니발적 철학자 캐릭터입니다.** 새 개념을 발명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 고프먼, 흑실드, 카뮈가 따로따로 한 얘기를 아프리카TV랑 룸살롱 언어로 한 번에 압축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재능이에요. 근데 그 압축이 잘 될수록 '표면만 보면 다 버린다'는 방패가 세워지고, 그 방패 뒤에서 이론이 반증 불가능해집니다. 재표형이 그걸 아는 순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다"(22:18:00)랑 "5년"입니다. 그 두 순간이 이 사람을 밎에서 철학자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Architect × Ultrabrain, 열한 판

이 분석은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같은 원문이란 지난번 36쪽짜리 보고서를 두 렌즈로 따로 읽었습니다. Architect는 구조 설명력을 최대로 밀고, Ultrabrain은 과잉 일반화랑 윤리적 누수랑 반례를 최대로 밍니다. 둘이 부딪힌 자리마다 판정을 달았습니다. 실제 두 명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 분석 세션이고, 숫자 (710/649/564/235/122, 18명, Photo 24, 삭제 9, 여캠 52, 춤 21, 조커 19)는 Ultrabrain이 따로 세서 전부 맞았습니다.

1. 여캠론은 존재론인가, 비유인가

ARCHITECT	후원자-공연자-플랫폼-중개-빔-졸업의 배열이 스타트업, AI, 오픈소스에 다 반복됩니다. 이 정도로 넓게 반복되면 사회적 존재론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앞에서 자기를 제시하고 자원을 교환합니다.
ULTRABRAIN	'언제나 어떤 자기제시가 있다'(약한 명제)랑 '모든 삶은 여캠이다'(강한 명제) 사이가 너무 멍니다. 우정, 돌봄, 놀이, 관조를 시장 공연으로 바꾸는 순간 이론이 반례를 정의상 없애버립니다. 그건 존재론이 아니라 반증 불가능한 프레임입니다.

판정. 범위 제한된 비판적 비유로 채택. 대상은 시장·플랫폼·평판 체계가 끼어든 노동. 그리고 짙어둘 게, 존재론 버전은 재표형이 아니라 에마형 거예요(22:44:38 '세상은 원래 여캠'). 재표형 본인은 22:17:53에 '구조적으로는 이 해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다'로 구조랑 존재를 갈라놨습니다. 지난 보고서는 재표형이 안 한 주장을 세워서 논파했습니다.

2. 충격적인 말이 더 진실한가

ARCHITECT	금기어가 추상적 자기기만을 뚫습니다. 방 사람들이 몇십 초 만에 투자, 노동, AI를 한 줄로 연결한 게 증거입니다.
ULTRABRAIN	빠른 동의는 진리보다 정서적 각성이랑 집단 동조를 보여줍니다. 에마형이 다섯 번 '듣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건 설득이 아니라 충격입니다. 모욕적인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수사 효과지 인과 증거가 아닙니다.

판정. 충격은 발견 장치로는 인정, 검증 장치로는 불인정. 중립어로 바꿔도 명제가 살아남는지 봐야 합니다. 생쥐형이 22:05:38에 먼저 한 말입니다.

3. 투자자는 회장님·포주인가

ARCHITECT

집중된 자본은 행동을 바꿀 힘을 갖습니다. NVCA 표준 계약은 실제로 현금흐름권이랑 통제권을 나눠 갖습니다. 비유가 권력 비대칭을 보이게 합니다.

ULTRABRAIN

투자자는 손실을 지고 계약상 책임이랑 정보, 네트워크를 줍니다. 창업자도 협상하고 지분을 가집니다. 범죄적 중개랑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분석이 아니라 모욕적 등치가 됩니다.

판정. '회장님'은 고객·자본 집중도 경고로 유효. '포주'는 공개 분석에선 통제권·중개권·의존성이라는 중립 변수로 교체.

4. 시장은 안 보이는 기술을 보상 안 하나

ARCHITECT

고객이 못 느끼고 비용·속도·신뢰성에도 안 붙는 완벽주의는 보상이랑 분리된 자기착취입니다. 연구형 정리문(23:00:40)이 정확히 그걸 짚었습니다.

ULTRABRAIN

보안, 아키텍처, 테스트, 문서화는 지금 안 보여도 미래 장애를 줄입니다. 시장은 늦게, 간접적으로 보상합니다. '시장이 안 알아줌'을 '가치 없음'으로 바꾸면 그건 여캠론이 비판하던 시장 환원주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판정. '안 보인다'가 아니라 '가치 경로를 설명 못 한다'가 문제. 장기효과랑 옵션가치까지 넣은 보상 함수로 판단.

5. 졸업은 해방인가

ARCHITECT

무대 규칙에서 벗어나 하고 싶던 일을 할 자원을 얻는 게 이론의 목적입니다. 노자 9장 그대로입니다.

ULTRABRAIN

엑시는 다른 투자, 세금, 생활수준, 명성 유지, 새 사업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졸업한 사람'만 보이는 생존자 편향이고, AI 무대에는 졸업 노드 자체가 없습니다("지피티 두 개만 남은 나").

판정. 졸업을 사건이 아니라 의존성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재정의. 수입원 다변화, 낮은 고정비, 지분·IP 통제, 관계의 질.

6. 모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ARCHITECT

더 좋은 모델을 모르면 비교 기준이 낮아서 박탈감이 적습니다. 경험이 새 욕망을 만들어 종속시킵니다. 헤도닉 적응 연구가 있습니다.

ULTRABRAIN

이건 비교 고통에 대한 사실일 순 있는데 지식의 해방 가능성을 지웁니다. 불교에서 무명은 괴로움의 원인이지 자유가 아니고, 밀은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라고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판정. '무지의 행복' 대신 기준점 관리랑 선택적 노출로 수정. 도구 가치를 알되 한 공급자를 필수품으로 안 만드는 게 자유.

7. 죽음을 생각하면 더 잘 사나

ARCHITECT 유한성을 실감하면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마르쿠스 2.11, 세네카 101이 다 그 얘기입니다.

ULTRABRAIN 어떤 사람한테 죽음 생각이 마비랑 충동을 키웁니다. 재표형은 '죽고 싶다'(21:44:36)에서 출발했고 09-01엔 '자살버튼에 손 올려두고 일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이랑 위험 신호가 섞여 있는데 철학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판정. 철학적 메멘토 모리는 가치 정렬 도구로만. 실제 자살 생각이 의심되면 토론을 멈추고 안전 확인이 먼저. 생쥐형의 '그러지마'가 정답이었습니다.

8. '그래도 춤추자'는 반항인가 순응인가

ARCHITECT 세계가 부조리한 걸 알고도 행위랑 감각을 선택하는 건 허무주의를 넘는 긍정입니다. 카뮈 마지막 문단입니다.

ULTRABRAIN 30초 전에 '회장님한테 붙어서 노는게 맞고'(22:38:17)가 있습니다. 회장이 시킨 춤을 더 열심히 추는 거면 그건 착취의 내면화고, 의미 찾기가 구조 바꾸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판정. 진짜 춤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즐기는 수행, 거절, 규칙 협상, 다른 무대 만들기. 이 넷이 없으면 긍정이 아니라 적응.

9. 여성혐오 비유를 빼면 통찰도 사라지나

ARCHITECT 원형의 금기랑 육체성이 바로 자기상품화의 불편함을 전달합니다. 다 중립화하면 칼날이 무뎌집니다.

ULTRABRAIN '플랫폼 공연자', '평판 노동', '관계 노동'으로 바뀌도 구조는 남습니다. 특정 집단의 낙인을 빌려야만 살아나는 통찰이면 그 통찰은 원래 빈곤한 겁니다.

판정. 원형을 인용할 땐 이름을 보존하되, 일반 적용에선 중립 모형으로 번역. 여성·성노동의 실제 비대칭은 별도 층위로 존중.

10.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쟁 모델

ARCHITECT

여캠론은 수직 사슬(자본→공급자→플랫폼→중개→공연자→채무)입니다. 그 사슬이 대화 내내 반복 재구성되는 게 이 이론의 설계상 강점입니다.

ULTRABRAIN

근데 같은 밤 21:59:24에 에마형이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공유지의 비극이었다.' 2만 달러치 쓴 게 남들 뚫이었고, 다들 할당량 다 썼고, 1d 남은 시트만 걸린다. 이건 수직 후원이 아니라 경합재 배분 실패예요. 참가자가 직접 명명한 경쟁 모델인데 지난 보고서 색인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판정. 둘 다 남깁니다. AI 쿼터 사건은 여캠론(종속)보다 공유지의 비극(고갈)이 더 잘 설명합니다. 이론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11. 지난번 보고서는 어디가 틀렸나

ARCHITECT

구조 매핑이랑 구름·잔디 구분은 잘했습니다. 비유 사전 32항목도 쓸 만합니다.

ULTRABRAIN

SHA-256이 틀렸습니다(8f68cc...라고 썼는데 실제 파일은 다릅니다). '벌 전의 지옥'을 에피쿠로스에 붙인 건 계보가 늘어졌고, 바흐친 '카니발'은 해방적 전복 증거 없이 붙였고, '모든 경제 주체'가 재표형 문장이 아니라 연규형이 붙여 넣은 AI 정리문이라는 걸 흐렸고, 재표형 자기파괴 발언을 '실존적 수사'로 너무 관대하게 읽었습니다. 반대로 원문을 '유해하다'고 단정한 건 이 기록만으로 입증 안 되는 도덕화였어요.

판정. 이번 판은 그 열 가지를 고쳤습니다. 화자 구분(재표형/연규형/에마형/AI), 계보 재배치(세네카 13, 키르케고르), 카니발 삭제, 자기파괴 발언에 걱정 명시, '유해' 대신 '위험 높음'.

여섯 문장이 남습니다

드립이랑 밈이랑 욕을 다 걷어내고, 두 리뷰어가 다 통과시킨 것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캠론의 방어 가능한 핵심입니다.

1

일은 결과물만이 아니라 감정·이미지·관계·서사를
같이 공연하게 만듭니다. 고프먼, 혹실드.
여캠론에서 제일 튼튼한 부분.

4

높은 성능이랑 높은 지위는 기준점을 올려서 이전
상태를 결핍처럼 느끼게 합니다. 다만 그건 중독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2

돈은 액수가 아니라 권리·기대·통제·상환 조건을
데리고 옵니다. "아무 돈이나 받지 말아라." 연규형
번역이 원문보다 좋았던 자리.

5

시장이 지금 값을 안 매긴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손님이 몰라주는 테크닉이랑 쓸데없는
테크닉은 다릅니다.

3

플랫폼은 무대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입니다. 노출,
가격, 쿼터, 접근권을 정합니다.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면 제일 위 칸이 사라집니다.

6

구조를 안 다음에 계속할지, 거절할지, 나갈지, 다른
무대를 만들지는 별개의 선택입니다. 그게 '그래도
춤을 추자' 뒤에 빠진 한 줄입니다.

버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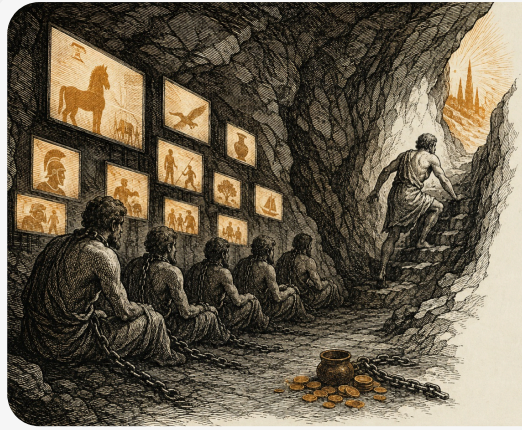
'모든 직업은 여캠', '세상은 원래 여캠',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B&M',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삶의 엔진', '모르는 자만이 번뇌에서 자유', '자위는 충전이니까 생산적'. 각각 의미 미끄러짐, 구성의 오류, 시장 환원주의, 죽음 개념 혼동, 불교 거꾸로 읽기, 자기합리화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이스, 똥녀, 팔릴 만한 애로 부르는 말. 이건 논리가 아니라 그냥 등급표입니다.

하나 더요. 이 비유가 굴러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보면, 여자라는 게 입었다 벗는 옷처럼 다뤄집니다. "가슴 파인 옷을 입어, 속옷에 틱을 꽂아넣게 만들어"(22:46:18), "옷 갈아입고 와"(22:52:42),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올게 언냐"(22:53:45). 낙인을 코스튬처럼 쓰고 벗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고, 그 낙인을 벗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고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여캠이다, 가 아니라. 시장이랑 플랫폼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일부를 공연하고 교환한다. 자유는 무대를 알아차리고, 가격이랑 규칙을 협상하고, 팔지 않을 부분을 지키고, 나갈 권리와 말할 권리를 계속 갖고 있는 데서 시작한다.

여캠론 수정판 · 이 문서



"프론티어 맛본 자는 약물 중독"(23:00:03)의 반대편. 플라톤은 동굴 밖을 본 사람더러 다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행복이 아니라, 알고 내려가는 게 일입니다.

재표형한테 남기는 한 줄

형이 그날 밤 한 말 중에 제일 큰 건 "우린 여캠이야"가 아니라 이 둘입니다. "다들 삶에 고상함을 숨겨뒀어"(22:35:58)랑 "몸으로 느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게 너무 잔혹하다"(22:37:04). 앞엿것은 사람을 상품으로 낮추는 대신 다 숨은 존엄이 있다고 보는 문장이고, 뒤엿것은 말이랑 삶 사이 거리를 아는 문장입니다. 그 두 문장 사이에 여캠론이 서 있으면 그건 철학이고, 그 둘을 빼고 '세상은 여캠'만 남으면 그건 잘 만든 밈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켜다고 하셨는데(23:02:31), 그 두 문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제일 잘 요약한 건 철학자가 아니라 에마형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존나 불편하게 듣고 있지만 존나 재밌어서 문제임"(22:49:04). 그날 밤 방이 한 일이 딱 그거였습니다.

데이터, 재현, 참고문헌

데이터

원본	KakaoTalk_Chat_근카스와 AI 포모단_2026-09-04-23-11- 37.csv (mengmotaMac 다운로드 폴더, SHA-256 a573b35a...38c71), 185,341행, 70명, 2026-08-13 17:12 ~ 09-04 23:15
절단	182,906행(조재표 "그 나는 요즘")부터 끝까지. 2,436발화, 18명, 21:29:49 ~ 23:15:24
도구	DuckDB로 절단·집계. Photo 24, Emoticon 1, 삭제 표지 9행. 지난 보고서의 절단 파일 해시 (8f68cc...)는 재현되지 않았고, 이번 절단 파일은 따로 보관
계보 검증	ctext.org(도덕경 9, 장자 천도· 양생주, 논어 4.5·13.3, 맹자 6A6), perseus(변론 21d,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6), wikisource(명상록 2.11, 세네카 편지 13), gutenber(칸트 정초, 차라투스트라), biblegateway(갈 6:7, 전 9:10, 전 1:18, 잠 22:7), law.go.kr(2004다27488), twitch blog(2024-02-27), techcrunch(2025-07-28 주간 한도). 파스칼 139, 임제록, 방거사는 표준 인용으로 표시

핵심 구간 색인

21:29:49 발아 · 21:31:03 회장님 · 21:31:40 조크라테스
명명 · 21:33:04 야근 깨달음 · 21:42:32 구조론 · 21:43:06
마리오 · 21:44:36 죽고 싶다 / 21:44:41 그러지마 ·
21:45:14 오늘 삶이 끝나야 · 21:49:03 벌 · 21:50:41 조커2

참고문헌

플라톤 『변론』 21d-23b, 『국가』 415a-514a-517a-597e,
『고르기아스』 493b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9, 『니코마코스
윤리학』 I.7-X.6(1176b)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6.38·6.46·6.74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2.11·7.69 · 세네카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3·70·101,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1 · 에픽테토스
『엔케이리디온』 1·25 ·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24-132, 『주요 교설』 15·21 · 노자 『도덕경』 9·20 ·
장자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천도』 『외물』 · 공자 『논어』
4.5·13.3 · 맹자 2A6·6A6 · 순자 『성악』 · 『법구경』 1-2 ·
『살라타 스타』 SN 36.6 · 『초전법륜경』 SN 56.11 ·
『대반열반경』 · 『임제록』 · 『방거사어록』 · 갈라디아서 6:7,
전도서 1:18·9:7-10, 잠언 22:7, 누가복음 7:36-50,
고린도전서 1:27, 욥기 42 · 『바가바드 기타』 2.47 ·
『하가쿠레』 · 파스칼 『팡세』 Br.139/L.136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4:429·4:434 ·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7,
4부 · 니체 『차라투스트라』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도덕의
계보』 II §4, 유고 1888 16[40] · 마르크스 『자본』 I.1.4·I.6,
『1844년 초고』 ·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 『경제와 사회』 ·
고프먼 『자아연출의 사회학』(1956) · 혹실드 『감정노동』
(1983) · 아렌트 『인간의 조건』(1958) · 카뮈 『시지프 신화』
(1942) ·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116, 『논고』 4.1212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7·§53 · 부르디외 『구별짓기』
(1979) ·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1 ·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 시몬
베유 『공장 일기』 · 그레이버 『부채, 그 첫 5,000년』(2011) ·
한병철 『피로사회』(2010) · 세넷 『장인』(2008) · 허시먼
『탈출, 발언, 충성』(1970) · 롤스 『정의론』 §12 · Gentner,
Structure-Mapping, Cognitive Science 7 (1983) ·
Lakoff &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1980) ·
Bateson, Mind and Nature (1979) · Brickman &
Campbell (1971) · Baym, Playing to the Crowd (2018) ·
Duffy, (Not) Getting Paid to Do What You Love (2017)
·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27495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 Twitch, "An
update on Twitch in Korea" (2023-12-05) ·
TechCrunch, Anthropic weekly rate limits (2025-07-
28) · NVCA Model Legal Documents · YC Post-Money

· 21:52:25 씨앗 · 21:55:15 우리는 모두 여캠 · 21:55:33
욕망의 소매상 · 22:02:33 지피티 두 개 · 22:03:25 모르는
애들이 행복 · 22:05:23 포주 · 22:08:45 B&M · 22:09:02
만물여캠론 · 22:10:57 마이킹 갓 집 사고 · 22:12:42
비전공자 · 22:18:00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다 · 22:20:03
담배 · 22:23:46 지코는 선함 · 22:25:57 마이킹 정의 ·
22:28:33 TC도 안 주는데 · 22:35:17 IQ · 22:35:58
고상함 · 22:37:21 5년 · 22:38:46 허무주의 반박 ·
22:42:27 온톨로지 · 22:44:38 세상은 원래 여캠 ·
22:52:42 옷 갈아입고 와 · 22:57:32~23:00:40 AI 정리문
· 23:01:19 글은 다 켜플임 · 23:03:56 타짜 · 23:06:46
충전 · 23:14:41 켜플 계정 익스플로잇(이론의 실시간 검증) ·
23:15:24 끝

SAFE · AWS Activate · Google for Startups Cloud
Program · SOOP 별풍선 안내(개당 110원, 정산
60/70/80원)

만든 법

데이터 절단·집계 DuckDB(data-scientist 스킬) → 전량
정독 → 계보·현실 리서치 2레인(deep) →
Architect·Ultrabrain 독립 리뷰 → 웹 구조 설계
(DESIGN.md, STRUCTURE.md) → 삽화 13장 GPT
Image 2(판화 2도 스타일 고정) → 단일 HTML 빌드(bun)
→ Chrome headless A4 인쇄 → 전 페이지 렌더 QA. 글은
잡도리. 🐼

23:04:37 김연규 내가 한시간 반을 떠들었다고..?

우린 여캠이야, 다들 춤을 춰 · 조재표 여캠론 해체 · 2026-09-05 · 근카스와 AI 포모단 · 잡도리 🐼